

## 문재인 대통령, “특수학교 설립 위해 학부모가 무릎 꿇는 일 없도록 정부부터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 및 기공 행사에 참석해 “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교육자들과 연계하여 재능 있는 장애 학생들에게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개교한 서울 서진학교 설립 시, 장애 학생 학부모의 무릎 꿇는 소리로 드러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계기로 우수한 교육자들과 연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은 그 노력의 결과로 제과·제빵 등 장애 학생이 많이 취업하는 분야에 스마트농업, 반려동물 관리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여 장애 학생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장애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과 적성을 기를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특수교사의 확충을 추진해 왔다”며 “지난 4년간 14개의 특수학교를 개설했고, 1,717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했고 2017년 67.2%에 불과했던 특수교사 배치율도 82.4%까지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24년 3월에는 부산대에도 예술 중등 특수학교가 개교하고 2025년 3월에는 충북 청주의 한국교원대에 체육 중등 특수학교가 문을 연다”며 “우리 모두는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하고, 누구나 다름없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 학생들에게 직업은 자립의 토대이자 사회 속으로 나아가는 기반”이라며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기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보다 나은 마음으로 우리의 아이라고 여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동반 참석한 김정숙 여사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장애인의 자리가 마련돼 있는 세상을 위해

많은 분들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오늘 자리는 그런 노력의 결실”이라며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도록, 꿈이 닿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무장애 사회’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하영 서울 서진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도 주위에는 특수학교 보내는 것이 서울대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서 서진학교 보낸 것은 로또 맞은 것이라 말한다”면서 “서진학교 아이들처럼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에 맞는 학교에서 즐겁게 학교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경원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개교준비단장은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는 직업 분야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특수교육계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라 보시면 된다”면서 “학생들 개별 맞춤형 진로 직업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특수학교와 다른 굉장히 독창적인 업무분장이라든가 조직체계를 준비해놓았다”고 설명했다.

임 단장은 학교 건축에 대해서도 교육공간을 혁신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 뒤,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의 특수교육계 관련 전문가들이든 장애인 교육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에 오면 반드시 들려야 될 견학코스, 명품 특수학교로 만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원수 충북에너지고 특수교사, 이유정 서산성봉학교 학교기업 정검다리 별출카페 바리스타, 천진수 한국타이어

표준사업장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팀장, 표형민 대구가톨릭대학교 ‘맑은소리하모니카양상블’ 단원, 김민주 충주성심학교 학생이 차례로 발언하며 장애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 꿈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통로 제공 등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회장과 김예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참석해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축하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문 대통령 부부와 참석자들은 기공식 행사로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가 세워질 현장에서 기념 시삽을 하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첫 시작을 축하했다.

최광수기자

농촌진흥청, “미니 파프리카, 수확 후 기술로 신선함 지켜주세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량·간편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주목 받고 있는 미니 파프리카. 농촌진흥청은 미니 파프리카의 수확 후 신선도 유지에 알맞은 저장 온도와 포장 방법을 찾아 효과를 검증했다고 밝혔다.

미니 파프리카는 일반 파프리카 무게의 4분의 1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당도와 비타민 시(C) 함량이 높다.

농촌진흥청은 단순 종이상자에 담겨 상온에서 유통되고, 판매처에서 다시 소포장, 판매되는 과정에서 제거된 미니 파프리카의 저장 온도와 포장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에 부응해 연구와 검증을 했다.

실험 결과, 미니 파프리카를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는 10도(℃)이며, 비닐 랩이나 폴리프로필렌(PP) 포장보다 플라스틱 재질의 페트(PET) 용기에 포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포장해 유통하면 아무 포장도 하지 않고 종이 골판지 상자에 넣어 20도에서 유통했을 때보다 2배 긴 14일 정도까지 신선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유통된 지 14일째 미니 파프리카의 상태를 비교한 결과, 아무

포장도 하지 않고 20도에서 저장한 것보다 상품성이 5배 이상 향상됐다.

경제성 분석 결과, 페트 용기에 포장해 10도에서 저장한 미니 파프리카는 500g 상자 100개를 기준으로 여름잡아 72만 516원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미니 파프리카 16품종이 개발, 등록되어 있고 6종이 유통 중이다. 미니 파프리카 재배 면적은 파프리카 전체 733헥타르(ha) 가운데 35헥타르(ha)이다.

미니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박삼석 농가(경남 진주시)는 “최근 온라인 주문이 많아져 택배 이용이 늘고 있는데, 이 포장법을 활용하면 보기에 좋고, 보관도 편리할 뿐 아니라 품질 손실 없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홍윤표 과장은 “파프리카 새 품목인 미니 파프리카는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번엔 확립한 유통방법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성지아기자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



### 22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사업 13곳 선정... 총 105.6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2022년에 추진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3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시행 중인 사업지에 본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 연계성’과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된 사업지에 총 사업비 105.6억원(국비 63.3억원, 지방비 42.3억원)을 지원한다.

생활밀착형 스마트사업에 선정된 대상지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생활·복지: 스마트 문화예술공연거리(경기 안산시) 경기 안산시는 일반근린형 사업(18년 선정)으로 서울예대와 광덕지구를 잇는 예술대학로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촬영카메라와 스피커가 탑재된 스마트폴을 거리에 설치하여, 공연장면을 실시간 미디어월로 송출하고 음향은 스피커로 연동하는 스마트버스킹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② 안전·소방: 스마트 클린 세이프티존(경기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19년 선정)으로 취약계층 돌봄 및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거점공간을 조성 중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노약자 이용시설(경로당)에 LED 조명으로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광살균 방식의 공간살균 시스템을 구축, 감염병 취약계층인 노약자를 위한 상시방역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③ 교통: 스마트 제설(충북 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주거지 지원형 사업(20년 선정)으로 방치된 노후건축물 정비, 골목길 노후바닥 및 펜스 교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길 급경사지에 음파탐지, 영상분석 등 노면상태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고 원격으로 전기열선을 작동하는 스마트 제설시스템을 구축, 보행자 낙상사고와 빙판길 차량사고를 예방한다.

④ 에너지·환경: 친환경 스마트팜(경남 김해시) 경남 김해시는 중심지가 지형 사업(19년 선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활성공간을 제공하는 빛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건물 옥상정원에 ICT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팜을 조성,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최초·노후지역에서도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예비 高1,2,3 대상

SKY대 합격 및 수능만점 필수영어

2개월 단기 완성

열공 Study Cafe 무료 사용!

가장 어려운 영어 가장 쉽게 배우는 비법!

40년 경력 박사 직접지도

수강료 후불제

N skymt.kr

지금바로 skymt.kr을 검색해보세요

SKY대 쉽게 가는 길! SKY멘토스쿨 02-897-2050



# politics 정치

2 문화매일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 전남도의회 COP28유치특위, 유관기관과 함께 COP28 유치활동 결산과 향후 대책 논의

전라남도의회 COP28유치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COP28 유치활동 결산과 향후 대책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원, 전라남도, 남해안 남중권 COP28유치위원회 관계자 등 방역수칙을 고려해 참가자를 20명으로 제한하는 등 최소인원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0월 18일 정부의 COP28 일방적 양보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COP33 유치를 위한 남해안 남중권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선도지구 육성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강 위원장은 "COP28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민간 유치위원님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COP28 유치는 무산됐지만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김길용 부위원장은 "COP28 유치 활동으로 도, 시·군, 민간 시민사회에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성공적인 남해안 남중권 탄소중립을 위해 전남과 경남 그리고 민간까지 함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소중립은 미래세대에게 중요한 문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탄소중립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에 전남·경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강문성 위원장은 "COP33 유치기반 마련을 위해선 기후변화대응 선도지구 특별법 제정과 탄소중립 실증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전남도에 강력히 요구하며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김영안/기자

##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 유통인과 신뢰회복 최우선 당부'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문영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특위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거래제도 개선,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등 공사의 각종 현안에 대해 문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검증했다. 인사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문 후보자에게 공사의 이익과 유통인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었을 때 공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냐"고 물으면서, "공사는 그동안 유통인과의 대하는 도의시한 채,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이른바 갑질을 해 왔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21건에 달한다"며,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대화로 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건도 많다. 소송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유통인과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나서서 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유통인들이 부담하는 사용자 등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공사 직원들이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행태에 많은 유통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낮 시간대가 아닌 유통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통인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업무 재조정과 불필요한 인원 감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유통인들의 짐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한, 가락시장에서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하역노동자 노동여건

개선 문제,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채소1·2동 지하층 건설 문제, 가락물 4관(팔도마당) 중증장애인협회 일자리 지원 문제, 청과직판 미이전자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통인과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보자가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끊임없이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사특위는 인사청문 직후 문 후보자가 물류 및 유통 분야의 전문지식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거래제도 다양화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임명에 동의한다며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광수/기자

## "가상자산으로 후원해주세요 영수증은 NFT로 드립니다"



하고, 영수증은 NFT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후원자가 실명인증 후, 본인의 전자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을 이광재 후원회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후원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원화로 환전해 후원회 원화 통장으로 입금되며, 이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따라 관리 및 집행된다. 후원 금액의 영수증은 NFT로 발행돼 후원자 이메일로 전송된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가상자산 후원금' 모집 방식은 기획부터 추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에 기반해 진행된다. 제도적 안정성이 갖춰질 때까지 1인 한도 100만원, 전체 후원 금액이 10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우선 실험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광재 의원은 "한 해 동안 미래기술 관련 공부를 하며 가상자산, NFT,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반면, 정치권의 인식은 한참 뒤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인식을 바꾸고, 미래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혁신적 실험이 필요한 때"라고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기술과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 내가 스타트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이런 도전에 대해 업계에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블록체인협회(오갑수 회장)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정치후원금 활용 방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협회 차원에서 가상자산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장으로서 당시 박원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산 블록체인펀드·블록체인 스타트업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4월 암호화폐 제도화에 소극적이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틀렸다. 암호화폐는 신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날카롭게 받아쳐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국민 삶의 질 지표에 기반해 정치인들이 투명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책평가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가상자산 후원금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광재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의 결과인 셈이다.

최민식/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반려견을 위한 전용 놀이터 설치 지원 요청 2차 민원상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도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호원동 거주 소형 반려견 모임 주민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지역 내 반려견(소형) 전용 놀이터 설치 요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이래 2차로 12월 현재 그간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한 거주 주민들은 "반려견 전용 놀이터 희망 설치 장소로 호원동 중앙천변 유후부지 및 잔디광장을 소개하고 반려견 안전과 활동 강화를 위한 펜스 설치와 놀이터에 필요한 시설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정희 시의원은 "반려견 전용 놀이터 부지로 접근의 용이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운동과 산책 등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중앙천 유후부지에 반려공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함께 의정부시에도 적극 행정을 요구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여러면에서 최적의 장소인 중앙천변

반려인 쉼터 조성을 위해 관계부서에서 내용을 검토중에 있으며, 담당 공무원에게도 서울시 사례를 종합적으로 답습하도록 주문한 상황이며 하천법상 가축이나 동물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결과물이 바로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반려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박완수 의원, "창원 소방안전교부금 52% 인상 확정"

내년 창원지역의 소방안전교부금이 대폭 인상된다. 올해 기준으로 연간 42억 원 수준인 창원소방본부의 소방안전교부금이 내년에는 64억 원으로 약 52% 가량 증액되는 인상안이 28일 행정안전부를 최종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박완수 의원 측이 정부 세충청사와 국회를 오가며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과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해 지난 상반기에 소방안전교부금을 대폭 증액하는 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이후 정부의 행정 절차들을 거쳐 최근 인상안이 행정안전부를 최종 통과했다.

박완수 의원은 "그 동안 창원소방본부의 소방안전교부금이 인구나 도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면서 "이번을 계기로 창원지역 소방관들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남궁영/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l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홍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정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빠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 #새로운\_자치분권의\_시작

# #광고\_경기도의회\_신청사

## 도봉구, '온실가스 1인 4톤 줄이기 실천 약속' 캠페인 확산!

도봉구가 2050년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지역 내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도봉구 2050 탄소중립실천단'과 함께 '온실가스 1인 4톤 줄이기 실천 약속'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온실가스 1인 4톤 줄이기' 캠페인은 지난 2021년 4월 22일 '탄소중립 실천 범구민 결의대회'에서 시작된 '도봉구형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이다. 캠페인을 통해 탄소중립실천단원들은 도봉구 내 창동역, 도봉산역, 공동주택 등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실천약속 참여 서명을 진행하고, 1인 릴레이 캠페인 및 모바일,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12월 말 현재 1만3천4백여 명이 캠페인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11,700여 톤 감축을 약속했다.

캠페인은 '내가 실천하는 10대 온실가스 줄이기' 약속 항목 중 2가지 이상을 생활 속에서 지켜 나가는 방식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10대의 항목은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고 냉 난방 온도 준수하기(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 친환경 운전하고 자가용 대신 1주일에 한 번 대중교통 이용하기 우리집에 미니태양광 설치하기 먹음만 밥하기(전기밥솥 보온시간 3시간 줄이기) 에너지효율이 높은 TV, 전기밥솥 사용하기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 사용하지 않는 TV, 세탁기, 전기밥솥, 전자렌지, 가습기의 플러그 뽑기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 캔 등 분리 배출하기 예코마일리지 가입하고 친환경상품 사용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온실가스 4톤 줄이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1인 가구 기준이라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325W급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1개만 설치해도 충분히 만큼 간단하다. 만약 2천cc급 휘발유 차를 탄다면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마일리지, 친환경 운전 등으로 매월 60km를 덜 타면 되고, 도시가스(LNG) 사용 가구는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거나 적정 난방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매월 10% 정도를 아끼면 된다.

한편 도봉구는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2050 탄소중립 실천 범구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탄소중립 실천 요령 매뉴얼'을 도봉구의회와 시민단체 등 참석자에게 처음 배포하고, 7월에는 도봉구민 탄소중립 실천 요령 매뉴얼인 'Green Life, 내가 그린 Green Dobong' 4,500권을 제작하여 7월 지역사회에 배포하고 전국에 공유한 바 있다.

또한 11월에는 '2021년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CDP)'에서 전 세계 965개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고, 12월에는 '2021년 탄소중립 결의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기후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탄소중립은 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구민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도봉구 온실가스 1인 4톤 줄이기 운동에 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 고려대-성북구, 2021 초기창업패키지 '스타트스케일업데이' 성황리 마무리

### 2021년 한 해 사업 추진성과 공유의 장 마련(창업전문가 강연, IR, 멘토링 동시진행)



우수창업동아리 '폼앗이', '셀러스', 우수기업 '컴플렉시온', 바이오·의료 IR데이 수상기업 '시프트바이오' 창업전문가 강연, 네트워킹 및 멘토링, IR도 이어졌다.

성북구 소재 6개 대학(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한성대학교)은 2020년 9월 4차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초기창업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북구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진행 중이다.

구 관계자는 "세계적인 기업들도 스타트업부터 시작했지만 투자를 받아 지금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청년창업기업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된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우리구는 관내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스타트업데이 행사가 기업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졌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북구의 창업기업들이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 2022년에는 두 배 큰 혜택으로 아이와 임산부 위한 '강동아이맘택시'

강동구가 임산부와 영유아가정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리미엄 택시서비스 '강동아이맘(iMOM)택시'를 내년에는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8월 운영을 시작한 '강동아이맘택시'는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4개월 간 무려 2,600건의 이용실적을 보였다.

이에 강동구는 임산부와 영유아양육가정에서 더 많이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원혜택을 기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회원가입 및 신청은 2022년 1월 10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고, 2021년도 가입자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전용 앱을 다운로드 설치 후 회원가입을 하면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안내를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또는 24개월 이하



영아양육가정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택시를 이용하려면 전용 앱을 통해 배차 신청하면 되고, 진료목적의 병·의원, 보건소, 약국, 산후조리원 및 문화센터(건강증진프로그램 한정),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사진촬영 스튜디오 등에 방문·귀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용 후에는 지출영수증과 함께 수감권 등 방문처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며 "차질없이 준비하여 임산부 및 영아가정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 구로구, "가상현실(VR) 속 전통시장 구경하세요"

구로구가 전통시장을 온라인에서 둘러볼 수 있는 '전통시장 360도 가상현실(VR)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전통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360도 가상현실(VR)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360도 가상현실(VR) 서비스'는 구로·남구로시장을 위치한 380개 점포 안팎의 모습을 실제처럼 생생하게 옮긴 가상공간 시스템으로 화살표를 클릭해 시장 구석구석을 이동하며 구경할 수 있다.

이용 고객은 맛집, 식품, 패션, 뷰티, 잡화, 가구·생활용품 등 카테고리별 원하는 점포에 방문할 수 있으며 내부에 들어가 상품을 둘러보는 것도 가능하다. 또 상점명, 위치, 전화번호, 영업시간, 휴무일 등 가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온라인 판매물(구로시장)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장 내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자동심장충격기, 소화기 등 안전 시설물 위치와 주차장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또는 PC에서 구로구 스마트 관광지도, 구청 홈페이지, 서울시 3D 기반 S-MAP 등을 접속해 이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 지도포털에서 상점별 관심지점정보를 등록해 길 찾기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도림역 스마트구로 홍보관 VR 체험존에서도 전통시장 가상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가상현실 서비스를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장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 용산구, 찾아가는 사회보장급여별 통합조사 교육

서울 용산구가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보장급여별 통합조사 실무교육에 나섰다.

주민들에게 사회보장 급여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란 급여 신청을 위해 주민이 제출한 서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 공적자료, 신청인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장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교육 대상은 2020년~2021년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교육 희망 직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6개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소규모로 교육을 진행한다. 강사로는 복지조사과 통합조사팀 베테랑 공무원들이 나선다.

교육 내용은 ▲사회보장급여별 선정기준 ▲통합조사 진행 과정 ▲부양의무자 완화에 따른 지급 개정사항 등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 및 접수 시 유의사항 등 실무 전반이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 공무원과 구청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간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 접수 시 필수 구비서류 미정구, 전산 입력 오류 등 민원 발생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일선 복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투명페트병, 목요일에 배출하세요...영등포구, 분리배출 요일제 실시

지난 25일부터 영등포구의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투명페트병과 페비닐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이뤄지는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 내 투명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류를 별도 구분해 배출하는 것과 같이,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영등포구 전역의 공동·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매주 목요일 생수, 음료수 등의 투명페트병을 배출할 때, 내용물을 전부 제거한 뒤 라벨을 제거하고 페트병을 납작하게 압축한 후 뚜껑을 단아 배출해야 한다. 페비닐을 배출할 때에도 내부의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한 후 배출하면 된다.

배출시간은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며, 골목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페트병 전용수거함 또는 집앞에 요일과 시간에 맞춰 배출하는 방식이다.

단, 주의할 점은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고,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모든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반)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분리배출 요일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140개 단지에 대한 현장·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내년도부터 상시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투명페트병 수거를 위한 별도 마대 설치 여부, 혼합수거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필로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분리배출 위반 공동주택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옷·가방 등의 제품 제작에 활용될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11월의 수거 물량이 약 2.7배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생산량이 같은 기간 약 2.2배 증가하는 등, 분리배출제의 시행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투명페트병과 페비닐 분리배출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민분들의 자지만 강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미래세대 건강을 지키, 깨끗한 환경을 돌려줄 수 있도록 페트병 분리배출제와 자원 재활용 운동에 구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round-up

종합

문화매일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3

## 서울시, 동파 5건 중 1건 '집비움'...세밀 한파에 동파 예방 당부



서울시는 31일 일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세밀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장시간 외출에 따른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겨울 현재(12월 30일 오전 5시)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 피해 5건 중 1건은 '집비움(공가)'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파대책기간인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확인된 동파 피해는 모두 1,626건이다. 원인별 동파 현황을 분석했을 때, 이 중 17%인 277건이 '공가'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를 이상 지속될 때 동파가 폭증하는 만큼, 동파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연일 지속된 지난 25일(토)부터 27일(월)까지 3일간 크리스마스 연휴기간동안 서울에서만 971건의 동파피해가 확인된 바 있다.

시는 이번 주말 또다시 찾아올 세밀 한파에 대비해 각 가정에서는 야간·외출·여행 등 수도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꼭지를 조금씩 흘러두는 등 동파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10도~영하15도 이하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도물을 흘러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수도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1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한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 의심되면 서울시 상수도 민원상담 핫봇 '아리수톡'(카카오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 추가), 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동파,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향실'을 운영하여 동파 발생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광수/기자

## 부천시 소상공인들이 선별검사소 종사자들에게 은정을 나누는 희망의 연말

“따뜻한 어묵 국물 한사발과 호빵으로 코로나 잡아요.”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 햇살상인협동조합 그리고 부천시슈퍼마켓협동조합, 스마트병원은 12월 30일 부천시 종합운동장에 설치된 부천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어묵, 호빵, 샌드키를 선물하는 연말 희망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격무에 시달리는 코로나 선별검사소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부천시 노점상 협동조합인 햇살상인협동조합에서 판매 중인 어묵과 샌드키를, 부천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는 호빵 기계와 50만원 상당의 호빵을, 스마트병원은 다양한 간식을 전달했다.

희망나눔 봉사를 준비한 신방식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시는 선별검사소 분들을 응원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향후 햇살상인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매달 희망나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햇살상인협동조합 정원준 이사장은 “조그만 힘이라도 보탬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어묵, 꼬치, 호떡 등 조합원들이 만드는 다양한 간식으로 매달 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슈퍼마켓협동조합 백원선 이사장은 “겨울이면 생각나는 따뜻한 호빵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종사자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 참여했으며,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모으게 되어 기쁘다.”며 따뜻한 은정을 나눴다. 스마트병원 장세영 원장은 “급증하는 확진자와 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작은 응원을 전하고 싶다”며 직원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을 전했다. 함께 참여한 모든 임직원들은 방호복을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윤용민기자**

##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워크숍...2021년 일자리 성과 공유 및 위원회 재정비

### 일자리위원회 재정비, 신중년분과·융합분과 신설 및 위원 8명 위축



광명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일자리위원회 위원, 일자리 주요사업 부서장, 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김봉원 이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 한해 광명시의 일자리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성 있는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후에너지과 등 일자리 주요사업 부서장들이 올 한해 추진한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일자리 분야의 각계각층 대표와 전문가로 이루어진 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광명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일자리위원회도 새롭게 정비했다. 2018년 12월에 처음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는 노인, 여성, 청년 등 세 개 분과를 운영해왔으며 이날 지역고용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융합분과’,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신중년 분과’를 추가 신설하고 위원 8명을 추가 위촉해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발표하고 일자리 분야의 각계각층 대표와 전문가로 이루어진 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광명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일자리위원회도 새롭게 정비했다. 2018년 12월에 처음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는 노인, 여성, 청년 등 세 개 분과를 운영해왔으며 이날 지역고용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융합분과’,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신중년 분과’를 추가 신설하고 위원 8명을 추가 위촉해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8회 회의를 열어 일자리 정책 발굴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2년간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셨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길 바라며 모두 힘내시기 바란다”며 “광명시가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일자리 연결 부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 오산시 중앙동, 중앙로타리클럽·오색시장상인회와 복지사각해소협약

오산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9일 오산중앙로타리클럽, 오산오색시장상인회와 함께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내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오산중앙로타리클럽과 오색시장상인회와의 업무협약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력,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등 든든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전한 복지마을을 만들기 위함이다.

오산중앙로타리클럽 김순배 회장은 “살기 좋은 중앙동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중앙동과 소통하며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고, 오색시장상인회 천정무 회장은 “모두가 우리 이웃이라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중앙동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산중앙로타리클럽에서 업무협약과 동시에 동절기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방한조끼 80개를, 서울버티치과의원에서는 구강청결용품 4천개를 기탁하며 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에 힘을 더했다. 또한 천정무 회장이 대표로 있는 태양유통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매주 수요일 육류 30팩을 정기후원하고 있다.

신선교 중앙동장은 “이 어려운 시기에 불구하고 후원 기탁과 소외계층 지원에 협력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이에 힘을 받아 소외된 이웃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양시현기자**

## 용인시, 49년 역사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탈바꿈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또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등도 전면 개편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는 기존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 기준으로 작성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만 작성 대상인 탓에 모든 농지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농지대장은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농지원부 작성 신청이나 발급은 농가주 주소지에서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은 작성 신청이나 발급 모두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되거나 축사, 농막,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오는 2월까지 농지원부를 소지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이들의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대장이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농업인들이 변경된 내용으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평택시, 지역금융협의체와 지역상생 행정협력 협약 등 체결

평택시는 지난 29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지역금융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장을 비롯하여 관련 부서장과 평택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평택시지역금융협의회 소속 5개 금융기관에서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 ▲평택시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 및 관리현황 ▲평택사랑상품권 판매·환전 대행기관 운영 현황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현황 등을 설명하고 논의했으며,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력협약과 평택시 보조금 전용카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지역금융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협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후원으로 총 6억9615만4천원을 모금해 희망 온도탑 139℃로 초과 달성하게 됐다.

이 사업은 연중 권선구청 및 권선구 관할 12개 행정복지센터로 기탁되는 후원금품과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 등을 금액으로 환산, 1℃당 5백만원으로 계산해 연말까지 100℃, 모금액 5억원을 달성하고자 하는 권선구 사회복지과의 특수시책 사업이다.

2016년부터 매년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해 왔으며 올해도 권선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기업·단체·기관의 아낌없는

## 수원시 권선구, 사랑의 온도탑 139℃로 초과 달성!

시경보 권선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면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온도탑의 목표온도인 100℃를 초과달성하게 돼 기쁘다”며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권선구가 이웃의 정이 살아있는 따뜻한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2021 겨울방학

## 행복이 넘치는 특별기획전

**전시 프로그램** 북어생태전시/물속친구들의 생존전략/세계의 복(福)  
**체험 프로그램** 방울방울놀이/모래놀이/풍선컬링/복불복게임

**2021.12.25 토 ~ 2022.2.2 수**  
오전 10시 ~ 오후 5시30분 매주 월요일, 설 당일 휴관  
1월31일 정상운영

###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 행사 참여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추치·주관 남원시 | 후원 산림청 | 문의 : 063-620-5752~4

## 수원시, 인생을 바꾸는 '정리'의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제128회 수원포럼...  
정리전문가 이지영 대표,  
1월 6일 오후 4시 30분  
온라인 강연



수원시는 내년 1월 6일 오후 4시 30분 '적당한 삶 - 인생을 바꾸는 정리의 힘'을 주제로 제128회 수원포럼을 연다.

포럼은 공간크리에이티브이자 정리전문가 이지영 우리집공간컨설팅 대표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화상회의(ZOOM)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강연이다. 이지영 대표는 이날 포럼에서 공간 용도별 정리정돈 노하우를 설명하고, '공간'과 '정리'가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0~2021년 방송된 tvN '신박한 정리'에 출연해 놀라운 정리 실력을 보여주며 화제가 됐다. '비워내기 중요성', '적당한 삶'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정리는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게 우선순위"라고 강조한다.

유튜브 채널 '정리왕선데이대표'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에게 정리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저서로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삶이 바뀌는 신박한 정리)'가 있다.

이번 포럼에는 300여 명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 시흥시, 국토교통부 2022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 신청동 현장마을·군자동 자치재생 2곳 최종 선정

시흥시의 '군자동 자치재생(석곡공원 ~ 도일 삼거리 일원)'과 '신천동 현장마을(도원초등학교 ~ 상아공원 일원)'이 국토교통부 주관의 '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두 곳의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각각 1억 5000만 원(군자동, 총 사업비 3억)과 1억 원(신천동, 총 사업비 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된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추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고두보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민 및 공동체 중심으로 재생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흥시에서는 지난 2018년 1년간 '한올타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거쳐 현재 '한올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 중이다.

군자동 자치재생은 스마트 횡단보도 기술 도입을 비롯한 '걷고 싶은 안전한 길 만들기', 퍼실리테이터와 마을가드닝 등 집수리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주민 중심 마을재생 프로젝트', 청소년 주도의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전 세대 도시재생 점프 업!' 3가지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신천동 현장마을은 전통효소인 '이화곡'을 활용한 상품 개발인 '마을활력 회복과 경제

활성화',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심 통학로를 조성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마을 역사 및 기록을 책자로 제작하는 '탄탄한 마을 짜임새 구축'을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에는 시흥시 도시재생과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힘을 모았다. 홍성림 시흥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국토교통부 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에 군자동과 신천동 두 곳이 선정되기까지 힘써주신 관계자분들과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두 대상지가 이번 예비사업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 추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선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대희 군포시장 2022년 신년사 발표...“쾌속성장 기반 조성”

새해는 도시전체의  
혁신지도 완성...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귀중한  
한 해

한대희 군포시장은 12월 30일 2022년 임인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시정 목표 등을 밝혔다.

한대희 시장은 먼저 "2021년은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다"며, "군포의 미래를 위해 로드맵을 완성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회고했다.

한대희 시장은 이어 "새해는 도시전체의 혁신지도가 완성되고 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귀중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잘 사는 군포, 내일이 기대되는 군포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등, 쾌속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튼튼한 경제도시', '편리한 스마트도시', '행복한 안심도시', '푸르름 가득한 그린도시', '풍요로운 문화교육도시', '소통하고 공감받는 혁신행정' 등 6대 시정 과제를 제시했다.

'튼튼한 경제도시'와 관련해 한 시장은,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공업지역 전체를 재설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판로지원을 확대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정된 고용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수요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소상공인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전 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대희 시장은 "편리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GTX-C 노선 정차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급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구상 방안을 공론장 의견을 토대로 조속히 마련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환승 편리성을 높이는 등 도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후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원도심의 체계적인 개발 촉진을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군포역사 현대화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더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군포형 공공돌봄 인프라를 확대해서 가족과 육아에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부곡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해 시민 모두의 복지올타리를 만들겠다"며, "특히 코로나 방역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만큼, 상시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대희 시장은 그린도시 조성 관련해, "수리산 도립공원과 반월호수, 갈치호수를 도시와 시민의 삶의 영역과 연계해서 산림복지시대를 열어가는 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맞춰 지역특성이 반영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화교육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유니세프 지정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청소년 안전망 구축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전용공간인 I-CAN 플랫폼을 거점으로 이른바 MZ세대의 밝은 내일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누구나 제약없이 평생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 뉴딜 2.0 사업을 통해 평생교육도시 군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대희 시장은 "소통의 첫 걸음은 경청으로, 항상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하고 공감받는 혁신행정을 지향하겠다"며, "시민참여 민관협력기구인 100인 위원회의 활동범위를 시정 전반으로 넓히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은 끝으로 "시민행복과 도시가치를 더하기 위해 더 잘사는 군포로의 쾌속성장이라는 힘찬 비상길을 열어가겠다"며,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걸어간다면, 모두가 행복한 군포, 시민우선 사람중심의 가치가 실현되는 군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종균/기자



문화매일 5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 강화군, 겨울철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 주의 당부

강화군은 기습 한파, 폭설, 강풍에 대비해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올겨울 겨울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고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폭설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한파, 폭설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예찰활동 강화 및 농업현장지도에 나섰다.

우선, 폭설 시 비닐하우스 지붕에 눈이 쌓이기 전에 미리미리 쓸어내려주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눈 제거 작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온풍기를 가동해 하우스 내부에서 지붕의 눈이 녹아내리도록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하우스 안으로 녹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해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폭설로 하우스 붕괴가 우려될 때에는 강제로 비닐을 찢어주는 것도 시설물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눈의 무게를 못 견디고 비닐이 찢어진 부위는 신속히 보수해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준다. 시설하우스 작물이 저온피해를 받아 자람세가 좋지 않을 때는 요소 0.2%액이나 제4종 복합비료 등을 앞에 뿌려 생육을 촉진해야 한다.

휴경 시설물은 축창 및 출입구를 완전 개방해 바이러스병 매개충이 월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노지에 재배되고 있는 월동작물인 마늘, 양파 등은 배수로 정비로 물 빠짐을 좋게 해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비닐 등 피복물을 덮어 준 마늘과 양파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피복물을 점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2022년도 1~2월은 한파와 폭설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은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사전에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중남/기자

## 윤화섭 안산시장, 올 한해 안산시를 빛낸 시민과 따뜻한 소통의 시간 가져

윤화섭 안산시장과 한 해 동안 안산시를 빛낸 자랑스러운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행사는 시 홍보대사인 개그맨 이문제의 진행으로 보치아 국가대표인 안산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성욱 선수와 시화호에 빠진 차량 운전자를 구한 시민, 선별진료소에 2천만 원 상당의 아이스조끼를 기부한 시민 등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선사한 시민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또 내년 안산시청 육상부로 입단하는 육상 유망주 비워사 다니엘 가사마 선수와 온라인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짝꿍 연결해 새해 포부를 듣기도 했다.

풍고 출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안산에서 자란 다니엘 선수는 현재 청소년 육상



국가대표로, 올해 전국 체전 3개 부문에서 1위를 달성한 육상 유망주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를 빛내준 훌륭한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 시가

살맛나는 생생도시가 될 수 있었다"라며 "2022년에도 74만 모든 시민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 지방자치부활 30주년

## 1,380만 도민을 위한 새로운 시대 경기도의회가 열어갑니다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





## 경남도, 입주민과 함께하는 현미경 품질점검 실시

경상남도는 주택법 개정으로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올해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시공 전문가들이 사용검사 전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품질점검단 역할은 공동주택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며, 시장·군수에게 하자 판단 여부를 자문한다.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남도에서는 골조가 제대로 시공되어야 층간소음, 결로, 누수에 대한 하자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골조시공 중(1차), 골조완료 후(2차), 사용검사 전에 최종 점검(3차)을 해 아파트 건설 기간 총 3회의 품질점검을 한다. 품질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차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1·3차 품질점검은 경남도에서, 2차는 시장·군수가 맡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2월부터 교통 분야를 추가하여 건축·구조·토목·조경·전기·통신·기계·소방 9개 분야 전문가 97명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현장점검을 하였다. 26개 단지, 17,034세대에 품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공불량, 안전관리,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및 권고 등 1,191건을 지적하여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가 조치하도록 하였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교통분야는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로, 입주민과 함께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인 및 지하주차장을 동행하면서 점검해 입주예정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골조시공 중에는 ▲ 콘크리트 균열 및 지하층 벽체 누수 발생 ▲ 철근 배근 정착 길이 불량 ▲ 결로 방지 단열재 시공 불량 ▲ 흙막이 가시성 불교 위험 ▲ 기초 절근 보양 미흡 등이 있다.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 지적에는 ▲ 도배들뜸, 미장박리, 가구파손 등 마감 불량 ▲ 어린이, 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 장애물 제거 ▲ 고사목 제거 및 고사목 식재 계획 수립 ▲ 안내판·반사경·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 설치 ▲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배관 명칭 및 유량 표시 등이 있었다.

또한, 건설시공 및 건설기술발전을 위한 우수사례를 141건 발굴하였다. 단열페인트 3회 시공으로 결로 방지와 에너지 절약 시설물 설치 및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채움재 시공, 지하주차장 제방 및 친환경 환기시설 시공 우수 등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시·군 통보 및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재하여 전파하였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아파트 건설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파트 품질 개선 확산에 기여하였다”며, “내년에도 입주민들과 함께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광남/대기자

## 충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충주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4곳을 지도점검하고 위반행위 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통합환경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대기·폐수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은 대기·폐수 무단배출 등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 점검’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39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8건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5건 등 총 8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경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중대 위반사업장 11곳은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위반사항으로 배출시설 비정상 운영,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배출 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 점검 시

적발됐다.

우광원 기후에너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상생활 속 건강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금천구, 불법주정차 전동킵보드 견인 시행

금천구는 2022년 1월 3일부터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킵보드(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동킵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근거리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용된 후 길거리에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주정차된 전동킵보드를 견인하기로 했다. 견인은 전동킵보드가 놓인 위치에 따라 즉시 견인과 유예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 개인소유 제품은 제외된다.

먼저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에 주정차된 전동킵보드는 즉시 견인한다.

그 외 일반 보도에 주정차돼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킵보드는 신고 시 킵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다. 유예 시간 이후에도 방치될 경우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 원이 부과되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이 추가된다.

신고 방법은 ‘서울시 전동킵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동킵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향후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최근 불법주정차된 전동킵보드 증가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킵보드 대여업체와 이용자분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전동 킵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 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하고 허가 없이 번식시켜 판매... 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21곳 적발

### 경기도 특사경, 2021. 1월 ~ 2021. 12월까지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집중 수사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용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영업 5건(판매업 1, 장묘업 1, 미용업 1, 위탁관리업 2)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하남시 소재 개 도살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쇼크펜으로 90두 상당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달미를 잡혔다.

김포시 소재 개 농장주 B씨는 2019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분변을 잘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견 2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음식물폐기물을 개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팀에 걸렸다.

포천시 소재 개 사육자 C씨와 D씨, E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분뇨와 악취 속 환경에서 반려견 47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신고 없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했다. 또 C씨(2019년 10월부터)와 D씨(2021년

1월부터)는 각각 올 10월까지 허가업체 명의를 빌려 허가없이 번식시킨 반려견 338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시흥시 소재 반려동물 장례업자 F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신고 없이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했으며, 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로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 추가해 형사입건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 상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며, 지난달부터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society

사회

문화매일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7

### 광진구, 노인복지시설 꼼꼼한 점검과 지원으로 방역 강화

광진구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 차단을 위해 집단감염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전담반을 신설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방역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또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면역이 취약한 노인복지시설 내 고령층 환자에 대한 방역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구성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찾아가는 백신 접종 실시 등 총합한 노인복지시설 방역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신설을 통한 비상연락체계 구축하고, 각 시설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방역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시설 방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현장점검을 중심으로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 ▲종사자 선제검사 및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여부 확인 ▲종사자 및 이용자 백신접종 현황 파악 및 추가접종 독려 ▲접촉면회 금지 및 방역패스 적용 여부 확인 등 주기적으로 철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한 이달에는 ▲관내 134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2613명에 대한 KF-94 마스크 지원 ▲거동불편 이용자들의 이상증상 발현 시 신속한 검사를 위한 자가진단검사키트 1,482개 지원 ▲개인 방역을 위한 손소독제와 손소독 티슈를 추가 배부하며 방역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구는 거동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을 위해 상·하반기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주야간 보호센터 어르신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백신센터까지 모셔가는 동행 서비스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주2회 이상 선제검사를 하시는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area

영남 I

8

문화매일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 경산시, 코로나19 대응 우수시군 선정 '대상 수상'

경산시는 경북 북도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 대응 우수시군 선정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과 역학조사의 완성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재택치료 운영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보건소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경산보건소는 지난 2020년 2월 19일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의료 방역 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감염병의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관을 임명하고,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여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힘 없이 달려온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우리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돌려 추가접종을 완료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말연시에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들이 협조하여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성혁/기자



## 경북도, 유튜브채널 '보이소 TV'로 새해 해돋이 실시간 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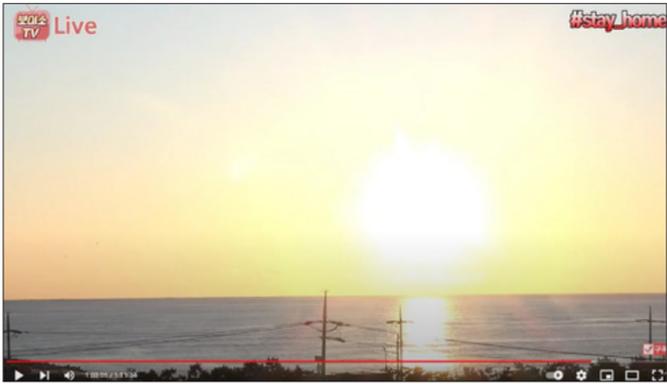
### 코로나19로 해돋이 행사 취소, 보이소TV 영상으로 대신

경상북도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보이소 TV'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취소된 새해 첫 해돋이를 실시간 중계한다고 밝혔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지금 전국의 해돋이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다.

각 지자체는 보다 확실한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해돋이 명소 인근의 차량 진입통제, 주차장 폐쇄 등의 추가 조치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북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독도와 해돋이 최고의 명소인 포항, 영덕, 울진 등 해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표적인 해돋이 관광지가 자리 잡고 있어 아쉬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에 경북도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보이소TV'를 통해 임인년 새해 모두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 새해 첫 해돋이 현장을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올해 울진 후포항 일출 생중계에 이어 내년에는 경주 양남면 읍성현에서 진행하며 중계는 아침 6시 30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일출 예정시간은

7시 32분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에도 해돋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 볼 수는 없지만 슬기롭게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는 도민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라며, "임인년에는 검은 호랑이의 기상으로 당당한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윤봉규/기자

## 안동시, 올해 기관표창 33개 수상, 공모사업 92건 선정

### 사업비 627억 원 확보 - 강소도시로서 경쟁력 끌어올려

안동시가 한 해 동안 33개의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9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포상금 2억9천8백만 원과 사업비 627억여 원을 확보하며 경북북부권 중심도시로서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2년째 지속된 코로나19로 제한된 여건 속에 시정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우수기관 선정에 비롯하여 중앙단위 평가 9개 부문, 도 단위 평가 24개 부문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전 분야에서 골고루 수상하며 건강관 시정, 빈틈없는 시정추진력을 인정 받았다. 행정 분야에서는 '민원행정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상, '지방세정 종합평가' 장려상 등을 수상했으며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경상북도 평생학습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시·군 축산업무 종합평가' 및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환경·도시 분야에서는 '경북 환경상 평가' 최우수상, '미세먼지 대응 시책추진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코로나19로 대두된 시민의 건강·안전문제에 대한 성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사업 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예산확보와 시정운영에 큰 보탬이 되는

임덕자/기자

## 달서구, 아동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대구 달서구는 28일 제1기 달서구 아동친화도 모니터단과 굿네이버스 대구남부지부에서 아동친화도 모니터단원들이 제안하고 선정된 정책제안서를 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달서구 아동친화도 모니터단은 8-18세 아동 30명이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활동 중이다. 교육, 문화, 안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등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동정책제안서는 올 한해 아동친화도 모니터단의 활동 중 제안한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다. 선정된 정책 제안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운동기구 추가 설치'이다.

또한, 아동의 4대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중 아동권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호권'과 '발달권'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달서구는 '놀이터 같은 도시, 친구 같은 달서구'라는 슬로건 아래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친화도 모니터단과 읍무브즈 운영,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생애놀이터 조성, 아동보호팀 신설 등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한해동안 달서구 아동친화도 모니터단으로 적극 활동해 준 아동친화도 모니터단원들께 감사드리며, 아동들의 소중한 의견이 달서구의 정책이 되고, 미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달서구' 조성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동호/기자

## 포항시, 세계적 배터리 메카도시를 향한 힘찬 도약!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도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 저탄소 미래 신성장 산업육성을 통한 혁신적 산업구조 재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미래의 삶', '제2의 반도체산업' 등으로 주목받는 '배터리산업'을 포항시 미래 핵심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중이며,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배터리파크 구축과 이차전지 산업 밸류체인 완성, 10조 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포항시는 전국 최초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고, ㈜에코프로, ㈜포스코메카칼, GS건설(주) 등 Big3 엔지니어링 필드 13개 기업, 약 3조 5,192억 원으로 단기간 내 최대의 투자를 연이어 유치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포항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가 전국의 24개 규제자유특구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전국 우수특구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업들이 앞다퉀 진출해 추후 3,300개의 일자리를 지역 내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포항시는 현재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도시로 자리매김 중이다.

또한, 시는 지난 10월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총 사업비 107억 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준공해, 전기차 배터리 성능평가 및 종합관리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한 사용후 배터리산업의 안전과 환경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한편, 국가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산업의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환경부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지로 선정돼 블루밸리 국가산단 및 영일만 일반산단 내 연구지원단지와 기업집단지구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통체계 마련 및 관련 신산업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 예상된다.

한편, 포항시는 선제적으로 이차전지산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배터리 산업을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차전지 첨단기술 개발에서 제품 생산까지 전과정을 연계·지원해 녹색산업의 지역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지정으로 대한민국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재활용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사용후 배터리 거점수거센터),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배터리 이력관리) 등 집적화된 인프라를 활용·연계해, 2022년 급증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자동·고속평가가 가능한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구축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인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이차전지산업의 헤드쿼터로 나아가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현재 일평균 1~2대의 배터리 성능평가가 가능한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는 센터 구축 시 일평균 150대, 연간 3만 대 이상의 팩단위와 모듈단위 성능평가가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추정돼, 대량·고속 성능평가에서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나아가 포항시는 '이차전지 제조·공정인력 양성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제조·공정 인력 양성센터를 유치하는 한편, 엔지니어링, RIST, 가속기 연구소 등 협력 시스템을 통해 배터리 관련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포항대, 폴리텍, 마이스터고 등 인재양성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인력을 확보하는 등 기업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포항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철강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한 제철보국의 중심도시였고, 이제는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변화에 맞춰 배터리 산업의 메카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과거 세계경제 위기, 중국발 과잉생산 등 철강산업의 위기 때마다 포항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아왔던 만큼 포항시는 지난 7년간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신성장산업 유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로 이차전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게 되었다"며, "이차전지 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할 미래 핵심산업인 만큼 엔지니어링 유치, 차세대 기술 선점, 산학연 협업체대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포항시를 대한민국 이차전지 배터리산업의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노아/정용수/기자



영양군로컬푸드 온심마켓

다음에서 '온심마켓'을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영양고향장터'를 검색하세요!

# 영양군 우수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 온심마켓

<https://yyg.go.kr/onsimmarket>

문의전화 054-682-6277

# 박형준 시장, 부산 경제 반등 반드시 이뤄낼 것

부산시,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분야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부산시는 오늘(29일) '2022년 업무계획' 두 번째 일정으로 '지역경제 회복' 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부산시 경제정책의 큰 화두는 바로 '회복'과 '도약'이다. 2022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면서도,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체질로 탈바꿈하는 혁신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창업문화 확산의 거점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제분야 보고회를 개최한 것도 이러한 배경과 인식을 반영했다.

올해 박형준 시장 취임 후 1호 결재가 바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그만큼 부산시는 올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시정역량을 집중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총 22회 운영하여 코로나19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시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 3무(無) 특별자금 1,000억 원 지원, 2,300억 원 금융지원 확대, 경제 취약계층 3,000억 원 핀셋 지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지원을 시행해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했다.

또한, 미래먹거리 확보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지식산 협력체계를 구축해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 등 23개사를 유치해 역대 최대규모인 2조 1,685억 원 투자 및 8,326명 고용 창출 성과를 달성했다.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 도심융합특구 지정, 산단대개조 공모 선정,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개발 본격 추진 등 미래 혁신성장 거점 조성에도 박차를 가했다.

특히, 2030세계박람회 유치는 큰 보폭으로 속도를 내었다.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하고 민간유치위원회와 정부유치지원위원회 구성으로 범국가 유치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스타 이정재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홍보에도 힘을 쏟았다.

부산시는 내년에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책사업 예산의 13.7%인 1조 5,3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특별자금 이차보전금 107억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128억 원 및 3무(無) 특별자금 이차보전금 28억 원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10억 원 ▲한국모델랜드 기반 펀드 조성비 50억 원 등을 집중 투입해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부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1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지실사 대비와 전국민 범용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 경제체질 혁신, 미래경제 선도 3대 전략을 통해 부산경제의 제도약을 노린다.

시는 2022년 부산 경제회복을 위한 10대 역점사업에 집중한다. 10대 역점사업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총력 대응 ▲디지털 혁신거점(빅데이터 혁신센터/블록체인 기술 확산센터/인공지능 지역거점) 구축 ▲디지털 창의경제 양성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지식산 연계 산학협력 공간 조성 ▲부산역-북항 일대 창업벤처생태계 조성 ▲부산국제관광도시 본격 추진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본격 추진 ▲2022 FIATA 세계총회 개최 등이다.

둘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의 위상을 강화한다.

내년 하반기에 있을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통해 유치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전략적 국내·외 홍보에도 집중해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광업계 회복과 혁신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 관광도시 육성사업(3차년도)을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관광패스 개발, 대중대·유도산 시설물 개선, 다대소각장 부지 재개발 등 지속가능한 관광자원화 추진과 부산 대표관광콘텐츠 육성에도 집중해 글로벌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간다.

이외에도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글로벌 마이스(MICE) 매력 도시로 도약하고, 수륙양용 투어버스 등 신 해양관광 교통수단 도입, 수영만 오션경기장 재개발 등을 통해 해양레저 관광중심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셋째, 지식산 협력, 창업 혁신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난다. 부산 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추진과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강화해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청년문화거리 조성 등 청년문화 확산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등 지식산 협력 거버넌스를 확산하고 대학-기업과 협업체 맞춤형 지역인재를 적극 육성한다.

그리고 내년부터 유치원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해 유·초·중·고 전체 무상급식을 완성하고, 들락날락 1호점으로 시청 열린 도서관을 조성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넷째, 해양신산업 육성과 수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한다.

해양데이터서비스산업 육성 거점인 STEM빌리지를 조성하고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으로 유치해 고부가 해양지식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응한 해상특수물류 활성화하는 등 해양신산업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 항 신항건설 등 스마트·그린항만 인프라를 확충해 해운항만 생태계를 조성하고,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도시형 여촌뉴딜300사업, 부산공동어시장 중앙도매시장 개설 및 현대화 등도 박차를 가해 수산업 국가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

오늘 참석한 박수현 동서대 교수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클라우드 산업 등에서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가지고 속도를 내고 있어 반갑다"라며,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에 시가 전념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인재들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고, 오창호 영산대 교수는 "명실상부 마이스(MICE)도시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제기구, 협회 등의 사무국을 부산에 유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형준 시장은 "금년 한 해는 우리시가 나아갈 목표를 정하고 방향과 수단을 정하는 시기였고, 내년에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신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분야별로 판도와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정도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 내고,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부산시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도전하며 지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변화를 이끌어 내고 혁신을 선도하는 퍼스트무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면적,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전 부서에 당부했다.

남영영기자

# 진주시, 코로나19 위기 속 공모사업 대거 선정돼 국도비 확보 성과

민선 7기 공모사업 175건 선정, 국도비 2199억 원 확보

국도비 확보

진주시는 2021년 올해 중앙부처·경남도 등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40건이 선정돼 국도비 527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민선 7기에 총 175건, 2199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선 7기에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332억 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하면 공모 선정 건수는 136건(▲348%)이 증가했고, 국도비 확보액은 1867억 원(▲562%)을 더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에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 104억 원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16억 원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3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며 지역 발전을 도모했다.

2019년에는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216억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사업에 63억 원 ▲고령차 복지주택 사업 95억 원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48억 원 확보 등으로 원도심 개발과 복지시설 확충을 추진했다.

2020년에는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155억 원 확보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6억 원 확보로 남강을 중심으로 성북·강남지구 재생사업을 동시 추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21억 원 확보로 농촌새마을마을사업 추진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개보수사업에 19억 원 확보로 진주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이끌었다. 2021년에는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80억 원 ▲위험건축물 특별공모 사업에 60억 원 확보로 옛 영남백화점 부지에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 추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24억 원 확보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5억 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12억 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10억 원 ▲항공우주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18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는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중요한 통로로, 중앙부처의 다양화된 사업 선정 방식에 진주시의 발 빠른 대처가 돋보였다.

진주시가 코로나19 등 각종 어려움에도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과 재원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해석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공모사업에 전략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공모 선정률을 높임으로써 외부재원 확보와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면서 "급변하는 대외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진주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진주시를 대한민국 남중부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 ‘밤이 아름다운 도시’ 통영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감상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

강영훈/기자

통영시는 "밤이 아름다운 도시" 통영 야간경관 사진 공모전 수상작 27점을 2022년 1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동안 통영리스타트플랫폼 1층 갤러리에서 전시한다고 밝혔다.올해 5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야간경관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여 사진 30건 80점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사진 27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한 바 있다. 최우수상에는 아름다운 운하교 아래를 달리는 해상택시가 지나간 흔적을 담은 '빛이 흐르는 운하교'가 차지했고, 우수상은 '통영의 밤'과 '빛의 정원 디오파'이 선정되었다.전시된 사진은 통영리스타트플랫폼 1층에서 체온측정과 손 소독, 방문자 기록 관람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직접 방문하여 관람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통영시 홈페이지 인사이트통영 포토갤러리에도 수상작이 게시되어 있다.통영시 관계자는 "통영의

통영의 매력적인 야경이 널리 홍보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광용/기자

# '수소 없던 도시'서 '수소 자급자족 도시 창원'으로 변모

창원시는 30일 성주동 수소에너지순환시스템 실증단지에서 국내 1호로 구축된 수소생산기지의 본격 가동으로 자체 생산한 수소가스의 출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수소출하행사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백정현 창원산업진흥원장, 김방희 제이엔케이히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소생산기지에서 처음으로 수소를 출하하여 팔용수소충전소로 공급하는 수소 튜브트래일러 차량의 운행을 축하했다.

창원시는 울산, 대산, 여수 등의 석유화학단지에서 공급되는 기존의 부생수소에 대한 의존을 벗어남과 동시에 안정적인 수소 생산·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했다. 2019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을 유치한 이후 정부, 경상남도의 지원을 통해 구축사업을 추진해 2021년 4월 1일 1톤의 수소 생산과 출하가 가능한 국내 1호 수소생산기지를 준공했다.

수소생산기지의 핵심 설비인 수소개질설비는 국내 업체인 제이엔케이히터에서 개발·생산한 국산화 설비로 준공 이후 6개월간의 시험가동과 설비 안정화를 통해 수소생산과 출하 과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검증했다. 2022년 새해부터 수소승용차 250대 또는 수소버스 4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1톤을 매일 생산하여 창원시 관내 수소충전소에 공급하게 된다.

허성무 시장은 "오늘 수소출하식은 수소가 없던 도시에서 수소를

자급자족하는 도시로 거듭난 국내 최고의 수소산업특별시 창원의 역량을 보여주는 뜻깊은 날"이라며 "현재 1일 1.3톤의 수소를 사용하고 있는 창원시 수소공급량의 77%에 해당하는 1톤의 수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되어 안정적인 수소공급 체계를 갖춘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창원시 관내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수소생산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에는 1일 16톤의 수소가 생산·공급될 예정이며, 풍부한 수소공급 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소산업이 활성화되어 진정한 수소도시로 창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영영기자



문화매일 9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청렴 하동, 내년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

하동군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인 청렴과 친절에 중점을 두고 2022년도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로 반부패·청렴 시책을 내놓았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하동군은 올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전년 대비 3등급 상승했으며, 내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감소했다.

이에 군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 직원 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내부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코자 했으며, 올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외부청렴도 부분에서도 민원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책을 기획했다.

대표적인 시책으로 △월 2회 청렴 방송 진행 △Upright Hadong 12대 과제 실천 △청렴 교육 실시 △간부 공무원 청렴도 조사 △SNS 감질신고센터 운영 △청렴 해피콜 실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사 운영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목표 달성이 아닌 1등급을 향한 디딤돌로 생각한다"며 "떨어진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힘쓰고, 내·외부 민원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가가 내년에는 도내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군민이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남해군 '뚜벅이 버스' 노선 전면 개편

남해군이 16개 관광지를 순회하던 '뚜벅이 버스' 노선을 주요 핵심 관문 위주로 단순화 시켜 실질적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남해군과 농촌형교통모델 수탁운영회사인 남해여행자동차(주)는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지 순환버스인 뚜벅이 버스를 1월 1일부터 전면 개편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에 따르면, 기존 16개 관광지를 순회하던 뚜벅이 노선이 독일마을, 다랭이마을 등 주요 핵심관광지 위주로 단순화된다.

1회 운행에 3시간 10분이 소요됐던 코스를 1시간 50분 코스로 단축하고, 배차간격 또한 2시간으로 줄였다. 현행 하루 2회 운행에서 4회 운행으로 늘어난다.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방문하여 2~3시간 투어를 마치고 다음 버스를 이용하여 남해를 터미널로 되돌아 올 수 있는 구조다. 뚜벅이버스가 실질적으로 남해관광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선 개편이다.

또한 거리요금제와 병행해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이해 2022년 한해 동안 1일 이용권(5,000원) 제도를 도입하여 2곳 이상의 관광지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뚜벅이 버스노선은 남해공용터미널을 출발하여 바래길1.2코스~가천다랭이마을~홍천~북곡1주차장~독일마을~무림거리리를 순회해 남해공용터미널로 돌아오는 코스다. 핵심관광지 위주로 개편하여, 실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훈/기자



# 경남도,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확정...내년 본격 착수

경상남도는 28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진해신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진해신항의 대규모 사업 및 장기간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올해 2월 1단계 9선석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였고,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착수하여 11개월간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진해신항 건설사업의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22년 상반기부터 1단계 9선석에 대한 기초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7조 9천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2032년에는 스마트 자동차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컨테이너부두 9선석이 개장하게 된다.

진해신항은 2040년까지 12조 원을 투입하여 총 21선석의 대규모 스마트 항만을 조성하는 경남 최대 국제사업이다. 진해신항이 최종 완공되면 부산항 신항과 더불어 2040년 기준 4,20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 3위권의 세계 물류 중심 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항만 총 60선석 중 36선석을 경남도가 확보하게 되어 항만 기능이 경남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및 철도와 연계한 세계적인 트라이포트 물류허브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에 진해신항 건설사업 착수를 위한 국비 14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윤인국 도 미래전략국장은 "진해신항 건설사업 국비 145억 원 확보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2022년 상반기 기초조사용역 등이 본격 추진된다"며 "약 28조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지는 진해신항이 세계적 물류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재현/기자

# A

## area 호남 I

10 문화매일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 이환주 남원시장 '2021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이환주 남원시장이 29일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 대한민국 언론인 협의회, 스포츠한국TV, 국토 환경뉴스가 주관하여 2021년 한해동안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토발전, 지속가능한 도시, 안전 및 친환경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인물과 기업,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이 시장은 2011년 10월 남원시장으로 취임후 10년 동안 '현장에 답이 있다'는 행정철학과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비전을 갖고, 활기찬 지역경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잘사는 농촌, 꿈을 키우는 교육, 희망가득 맞춤형, 친절행정 등 남원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21년 한해 동안 전북 최초 2050탄소중립 목표 선언,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2년 연속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6년 연속 저탄소생활 실천 최우수 등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을 선도하였으며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전략계획 추진, 도시생태축 복원 기반마련, 시민안전 강화, 편리한 도시가로망 조성,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해예방,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 등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발전을 이끌면서 다양한 유형의 생태정원 조성 등 나무와 숲을 통한 힐링생태 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국토환경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 시장은 모든 결실은 시민과 함께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수상소감을 말하면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남원'을 강조하였다.

이남출/기자



### 익산시, 명품행정 전국 으뜸

익산시가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익산시민의 우수한 정책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시는 공직청렴 기강과 코로나19에 대처한 신속한 행정 서비스, 익산형 경제·복지·환경 정책, 기후변화 대비 신기술 농업추진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정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 전북도, 공공기관 등 17개 기관으로부터 총 42개 부문을 수상하며 4억4백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먼저 시는 자치 행정·경제 부문에서 최우수 수상기록을 세우며,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우뚝 서고 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시단위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 대응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분야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한 결과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지원 우수단체로 선정됐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로 '우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한편 익산시는 보건·복지 부문에서 다관왕의 수상기록을 세우며, 해당분야 선도 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역사회 복지사업 평가'에서는 3개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6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그 밖에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로부터는 청소년정책평가 우수 지자체로 국무총리상과 포상을 수여받았다. 시는 이와 함께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농업 부문에서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산림청에서 실시한 녹색자금사업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산림분야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는 우수자치단체로 포상 받았으며,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보급분야에서는 전국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발전 공모분야에서는 장관 표창과 상금을 수여받았다. 이 밖에도 경찰청-중앙일보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전북도가 주관한 각종 사업평가에서 최우수, 우수상 등 13관왕을 차지하는 기업을 토론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인정받은 행정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 대시민 행정복지를 실현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직원 뿐 아니라 시민들이 시정운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에 올해 각종 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수/기자

### 부안군농업기술센터, 2022년 신기술보급시범사업 신청·접수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과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우리지역에 신속히 보급 확산을 위하여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자에게 실증시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시범사업장은 우리지역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농가 신기술 수용을 높여 농업경쟁력 및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27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사업은 감소농육성, 생활자원, 식량작물, 소득작물, 병해제연구, 농기계임대 등 6개분야 42개사업 32억8천4백만원이며,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관련사업 종사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부안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 분야별 사업추진계획서를 참고해 읍·면농업소득상담소 및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각 분야별로 현지확인 및 사업성 검토 등 거친 후 '부안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회'에서 최종 적격자를 선정 지원 할 계획이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부안군 현장 맞춤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과 자유농업·농촌관광 활성화, 고품질 생산 신기술보급 현장 지원, 작물 안정생산 병해충 관리 및 스마트 농업 활성화 등 친환경 농업기술 시범사업에 지속적 투자와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사업추진 단계별로 연시회, 평가회 등을 통한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 남원시 부동산특별조치법 불법신청건 후속처리 심층취재

#### "눈 뻘히 뜨고 범죄자에게 협조하고 있는 듯한 남원시 민원처리"

남원시는 지난 2021. 11월 보도한 부동산특별조치법 불법처리신청에 대한 남원시의 처리결과는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수사권이 없기에 시정조치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신청사실이 녹취록과 문자메세지 증거등으로 충분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도려내지 못하고 있다. 담당직원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오히려 불법민원인 입장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남원시정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사법기관의 수사권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새로운 불씨를 야기하고 있다.

관련 부서는 물론이고 자체감사부서마저도 내부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정처리를 처벌하지 못하고 사건을 덮어서 해결하려는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를 지켜본 관계기관 및 시민들은 본건도 기존의 사례처럼 묵개고 사법기관에 처분을 회피하는 일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공무원의 무소신과 무능함을 넘어 불법허위사실을 바로잡지 못해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것을 두 손 놓고 쳐다보는 형국이다. 대부분의 고질 민원들이 본인들이 알고도 포기하거나, 미물만큼 미루다 주민집단행위로 번지고 나서야 관련당사자들을 형사고발조치하는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재조명하여 고질적인 행정처리의 문제점과 공직자의 무능함을 적시하여 책임을 추궁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고령층이거나 행정절차를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남아서 앞으로의 민원행정이 더 큰 문제로 키워져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지역이미지 실추논란을 빚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도록 방치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남원시는 법규해석능력이나 적용력이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시민사회의 따가운 비판에 대해 모르쇠로 넘기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한편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당부분 위법성을 인지하여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무원의 위법사실이 제시되어도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지 않고 민원처리절차나 행정처리절차가 장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또한 법적책임이 모호하여 공무원의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방패삼아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당사자에게 전가시키는 남원시 일처리는 크게비판을 받아 마땅하게 보인다. 이제 민원인들이 상급감사기관에 진정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함에 따라 더 큰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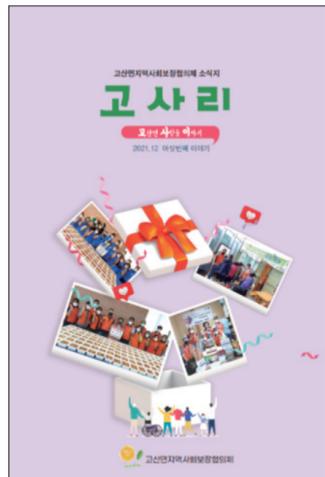
이남출/기자

### 완주군 고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식지 발간

완주군 고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1년 하반기 동안 추진한 봉사과 나눔 활동 등을 담은 소식지 '고사리' (고산면 사람들 이야기) 6호를 발간했다. 반기마다 발간하는 '고사리'에는 지사협위원들을 소개하고 올해 하반기에 추진 해온 특화사업과 희망나눔가게 후원처 소식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소식지에는 4년 연속 농어촌희망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사리 밀반찬 사업', 지사협 임원진의 자비로 추진한 '사랑의 밀반찬 나눔'사업, 고산면 주민들 도 함께한 '사랑듬뿍, 김장나눔 캠페인', 홀로 생일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생 신축하합니다~DAY',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금줄 달아주기' 등 따스하고 훈훈한 이야기를 담았다. '고사리'는 '미디어공동체 완두콩(대표 이용규)'에서 편집 및 제작, 발간비용까지 전액 후원했으며, 마을회관과 유관기관, 후원자에 배포한다. 문명기 고산면장은 "2021년 한 해 동안 희망나눔가게 등 여러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준 지사협 위원들과

후원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2022년에도 많은 분들이 나눔활동과 어려운 이웃들을 찾고 돕는 일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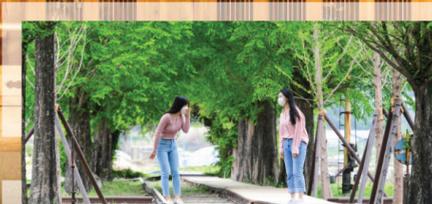


**남원시**  
| 남원에촌 |

쉬운, 여유 남원에서 만나다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서도역 옛 기차길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 광주광역시 동구, 오월정신 빛으로 승화... '빛의 분수대' 착공

내년 3월 개막 목표...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대거 참여



광주 동구는 5·18민주광장을 광주를 넘어 세계적인 역사문화광장으로 조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빛의 분수대 조성사업' 착공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3월 개막을 목표로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는 '빛의 분수대

조성사업'은 최근 문화재위원회 및 5·18기념사업위원회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내년 1월까지의 기본적인 하드웨어 설계와 기본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2월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테크니컬 리허설을 거쳐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빛의 분수대' 조성을 골자로 하는 '문화전당 야간경관 기반 조성사업'은 5·18민주광장 분수대 일원을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알리고,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가 참여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시설물 설치를 통해 5·18민주화 정신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동구의 역점사업 중 하나다.

동구는 '빛의 분수대'가 조성되면 낮에는 현재 분수대 물줄기를 그대로 볼 수 있고, 야간에는 특정 시간에 작동하는 ▲매립형 키네틱 조형물 ▲초대형 워터스크린 ▲민주광장 바닥맵핑 ▲미디어아트 작품을 통해 5월 광주정신을 선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 차례의 제안평가를 통해 1980년 5월 당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열정을 모티브로 한 '빛·불'이 시그니처 작품으로 선정됐다. 5·18 당시 계엄군에 맞서 광주시민들이 들었던 햇불은 민주, 인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오브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유재현 총감독을 비롯해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 김형석 작곡가, 영국 미디어아티스트그룹 유니버설 에브리링, 폴란드 출신의 디자이너 및 작가 크지슈토프 보디츠코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총괄 디렉터를 맡은 유재현 총감독은 "기대했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로 이뤄진다는 것은 매우 가슴 벅찬 일이다"면서 "'빛의 분수대'는 시간과 장소성을 담은 당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시민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며 통시성을 가진 작품으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 때 80년 5월을 직접 겪었던 김형석 작곡가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모티브를 얻은 수많은 번주들로 화합과 평화를 노래했다"면서 "이 작품을 통해 감동과 슬픔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희망을 노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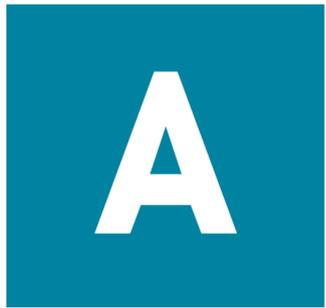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는

"역사적인 장소를 빛의 예술인 미디어아트로 빛날 정신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구현해 시민들과 80년 5·18 당시의 광주정신을 함께하고 싶다"면서 "미디어아트를 통해 오월정신이 가득한 5·18민주광장이 늘 함께하고 있고, 다시 찾고 싶은 시민들의 장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구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빛의 로드' 등 후속사업과 연계하고 도심 야간관광 필수코스를 개발해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켜 주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5·18민주광장 분수대는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적지로 보존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문화유산인 만큼 분수대 원형 보존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내년 3월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빛의 분수대'를 통해 오월정신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 동구를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area

호남II

문화매일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11

## 2021년 순천시 사회조사 결과, 시민 만족도 쑥쑥!

순천시는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에 대해 조사한 '2021년 순천시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회조사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순천시 1,008개 표본가구 1,912명을 대상으로 7개 기본항목, 12개 시도공통항목, 11개 전라남도항목, 20개 순천시 특성지표, 총 5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로, 표본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8%이다.

조사결과에서 순천시민 68.4%가 '순천이 살기 좋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해 전년 대비 19.3% 증가했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는 6.8점으로 전년 대비 0.3점 상승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조사결과와 다른 결과도 있다. 65세 이상 시민이 겪는 어려움은 지난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했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는 건강 문제를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급한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해 묻는 조사에서도 안전한 학교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보다 인성,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순천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본 사회조사 결과는 각종 정책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관심사항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책자도 발간해 배부할 계획이다. 사회조사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정보통신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기석/기자

## 진도군, 올해 32개분야 368억원 공모사업 선정



올해 진도군이 분야별로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과 수상 성과를 달성했다.

어촌뉴딜300사업, 신기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32개 분야에서 총 368억원을 확보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성인 문해 교육 지원, 공공체육시설 조성, 평생문화재 활용, 전통식품 산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기관 표창 등 수상 분야의 경우 중앙부처·전남도 평가 결과 19건에 2억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동·하계 전지훈련 유지, 걷고 싶은 전남 숲길(미르길), 행정정보화 연구과제 등에서 각각 수상했다.

특히 투자유치대상, 다산안전대상, 재정분석 등에서 진도군이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김양호/기자

## 전남도, '로맨틱 선샤인'으로 목포관광 매력 발산

KTTP 지원사업...6주간

평화낭만일상미식 등 다양한 콘텐츠 화제

전라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KTTP 지원사업인 문화콘텐츠형 목포시티투어 '로맨틱 선샤인'이 6주간 낭만도시 목포의 매력을 발산하고 종료했다고 밝혔다.

'로맨틱 선샤인'은 목포를 빛낸 옛 인물과 함께 목포의 주요 명소를 돌아보며, 연극, 영상, 노래 등 다채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코스 내내 뮤지컬 형식의 연극과 공연을 통해 목포의 낭만, 평화를 선사하고, 서산동 시화광목에서 요즘 화제거리인 오징어게임 행사로 재미를 더했다.

개항문화거리에서의 건백 체험, 목포의 대표 관광명소 관람 등을 통해 목포의 과거와 현재를 생생하게 만나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전남도는 목포시와 함께 광주는 물론



도내 거주 베트남 유학생, 국내 거주 외국인 단체 등을 초청해 이색적인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를 보여주고, 목포시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끌어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관광 트렌드 변화로 지역 관광 선호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테마형 목포시티투어 운영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며, 새로운 도심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을 찾는 여행객이 목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라며 "목포시에서도 2022년 테마형 목포시티투어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타 지역 관광객 확대를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 무주군, 도시민 무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으로 오세요

무주군이 도시민 유치를 위해 내년 1월 26일까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입교 희망자는 무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입교신청서 및 농업창업계획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증명서류와 함께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무주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며 공고일 현재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하인 자로, 최종 교육 세대는 농업창업계획서와 귀농교육 이수, 농업·농촌분야 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로 내년 2월중 선정할 계획이다.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3~12월)은 무주로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된다.

각 세대에 주택과 텃밭을 유상 제공하고 원에 시설하우스 1동과 버섯 시설하우스 1동, 공동경작지 1곳에서 영농 재배 실습을 비롯해 귀농귀촌 정착 실용 교육 및 농업 경제·경영 기초교육을 진행한다.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2017년 서울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은 서울시정 도시농업과에

신청하면 교육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 강혜경 팀장은 "올해는 가족실습농장 입교생 10세대 가운데 5세대가 무주군으로 정착 의사를 밝혔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과 교육에 집중해 도시민들이 무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문을 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수료생 31세대 52명 중 지금까지 12세대 24명이 무주군에 정착했다.

이정우/기자

## 전남 지역내총생산·개인소득 모두 늘었다

통계청 발표결과...2020년

1인당 생산 전국

4위·개인소득 10위

전라남도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기준 시·도지역소득'에서 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1.5%, 1인당 개인소득이 5.4% 증가하는 등 소득 신호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기준 시·도지역소득'에 따르면 2020년 전남도 지역내총생산은 78조 1천억 원으로, 2019년보다 1조 2천억 원(1.5%) 증가했다. 2020년 '1인당 개인소득'은 2천1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03만 원(5.4%)이 늘었다.

지역내총생산(GrossRegional Domestic Product)은 1년 동안 지역에서 새롭게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이다. '시·도별 GDP를 뜻한다. 2020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1천936조 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에 그친 반면 전남은 1.5%나 증가해 전국 8위를 기록했다. '1인당 생산'도 전남은 4천427만 원(전국 평균 3천7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해 전국 4위에 올랐다.

통계청은 전남의 지역내총생산 증가 요인을 건설업(16.0%), 농림어업(9.0%), 공공행정업(5.7%) 등 비제조업 분야의 생산 증가 때문인

김영안/기자

## 2021년 해남군 최고 농업인은? 농업인대상 시상식 개최

고품질 쌀부문 황산면

최정현씨 등 5명

농업인대상 선정

해남군은 12월 30일 규정 상황실에서 2021년 해남군 농업인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해남군은 매년 영농현장에서 선진기술과 열의를 바탕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유통·가공 등 농업경쟁력 제고에 앞장선 농업인을 선정, 시상해오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86명이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는 고품질(친환경)쌀 분야 황산면 최정현(54세)씨, 원예특작 분야 문내면 박성관(53세)씨, 농산물유통·가공

분야 북평면 해남농부삼촌영농조합법인 대표 김광수씨(60세), 축산분야 옥전면 이근주(60세)씨, 임업분야 삼산면 김중호(72세)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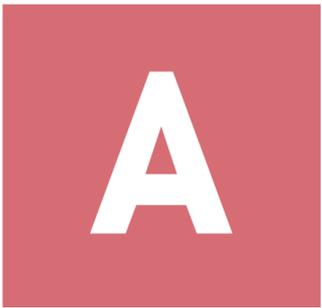
최정현씨는 작물 재배면적 24ha 중 약 70%인 16.5ha를 무농약 재배로 친환경농업 실천 및 고품질 쌀 생산 등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박성관씨는 문내면 친환경농업협회장으로 회원들에게 참다래와 오디 등 친환경재배에 대한 기술보급 공유 및 직거래 판매장 개척에 앞장서 공동판매에 주력하는 등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해 왔다.

해남농부삼촌영농조합법인 대표 김광수씨는 북평면 절임배추협의회를 결성, 연중 운영체계를 마련해 절임배추뿐 아니라 고춧가루, 메주 등 판매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해남군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양영욱/기자

오홍근/기자



area

강원/충청

12 문화매일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강릉시와 함께할 SNS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강릉시는 이달 31일부터 1월 14일까지 강릉시의 공식 SNS를 이끌어갈 제10기 강릉시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2022년 강릉시 SNS 서포터즈는 만 18세 이상, 강릉시를 사랑하고 현장 취재와 SNS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SNS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블로그 서포터즈 15명, 유튜브 서포터즈 5명,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포터즈 5명으로 총 2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방법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및 강릉시 공식블로그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선발 결과는 1월 21일 강릉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발표한다.

SNS 서포터즈는 강릉시의 주요 정책 및 관광, 먹거리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소식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스팟을 발굴하여 SNS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에게 강릉시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내년 2월 1일부터 1년간 활동을 하게 되며, 역량 강화 교육, 팸투어, 간담회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활동 중 강릉시에 제공하는 기사, 사진, 영상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활발히 활동한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분기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건영 시민소통홍보관은 "내년에도 일상에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SNS를 통한 소통이 더욱 중요시되는 만큼 강릉시의 다양한 소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서포터즈와 함께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 “공공기관 유치로 충남혁신도시 완성”

충남도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충남혁신도시 완성 발판을 마련한다.

양승조 지사는 29일 홍성군을 방문,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선7기 도정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미래 발전 전략과 현안 등을 논의했다.

민선7기 4년 차 시군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홍주문화회관에서 김석환 홍성군수, 도의회와 시의회 의원, 사회단체장, 각계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행사는 도정 보고와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내포KBS유치 △도청 소재지 군의 시 전환 △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 △국립과대학(공공의대) 설립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홍성군이 미래 발전 전략 및 과제에 설정한 '충남혁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내포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미래성장 사업 기반 조성 △남당항 해양관광 거점 어항 개발 등에 대해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철도-서해선 연결 사업 조기 추진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내포신도시 촉사 이전·휴업 추진 등 홍성군 현안 사항에도 도의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민선7기 도에서 지원한 핵심 사업으로는 △충남혁신도시 지정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남당항 축제광장 및 해양공원 유치농업 프로젝트 △어촌뉴딜 300사업 △홍성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홍성북향문화 창업 공간 '잇수'

창고 구축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역재방죽공원 조성 등을 보고했다.

양 지사는 "실학자 이종환이 태리지를 통해 '충청도에서는 내포가 가장 좋다'라고 언급했던 바와 같이, 홍성군은 역사와 전통, 지리적 여건과 관광 등 모든 것을 갖춘 풍요로운 고장"이라며 "이러한 홍성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충남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만드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군민과의 대화에 앞서 양 지사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홍성군 보존회 등을 방문해 대화를 나눴다.

이어 장곡면에 위치한 젊은협업농장 등 청년 현상으로 이동,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충남 청년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최정근/기자

## 연말'상복(賞福)'터진 청주시 일자리정책과

### 각종 일자리 평가에서 장관 및 도지사상 7개 수상

청주시가 올해 각종 일자리 정책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충북도에서 추진한 '2021년 생산적 일자리사업 우수시군 평가'에서 도지사상(장려)을 수상했다.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유능인력을 농가와 기업에 연결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참여자는 보람과 성취감을 얻도록 하는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특수 시책이다.

올 한해 청주시는 농가 522개소와 기업 13개소에 5만 3270명을 지원해 당초 목표인원을 124%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올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일자리정책과는 올해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고정화/기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우수사업 2개 부문 '고용복지부장관상',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서 직원들도 적극적 업무 처리에 대한 노고를 인정받아 '일자리창출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표창(주무관 임재희)', '희망근로 지원사업 유공 행정안전부장관표창(주무관 유지영)', '일자리창출 유공 도지사표창(주무관 이유경)' 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적극 추진의 공로로 3분기 으뜸부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청주시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일자리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초, 철원군 서면 '달빛공원 주변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 착수

철원군은 군부대 이전 등 지역활력 저해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외수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따른 지역소득창출을 위하여 서면 와수리 '달빛공원 (옛이름 龍山)' 주변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하여 강원도 협의를 통해 21년 사업비 2억5천만원, 22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2년 추진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과업기간이 10개월로서 2022년중으로 관련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술검토, 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까지 완료해 2023년 본격적인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1년부터 2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서면 '달빛공원 주변정비사업'은 서면 와수리 1247번지 일원 57,000㎡의 산림을 총 48억원 투자하여 수목번영을 통해 봄에는 철원군의 군화(群花)인 철쭉동산으로 가을에는 단풍숲으로 조성하며, 그 주변 1.4km의 둘레는 벗꽃나무길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달빛공원, 서면 체육공원, 화강 신빌 제방길과 와수시가지지를 연결하는 10km의 거리를 '와수 둘레길'을 조성하여, 와수전통시장과 시가지를 관통하는 특별한 걷기코스로 주민에게는 여가와 건강복지를, 방문객에게는 시내유입 및 머물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자등권에서는 평화누리길, 김화읍에서는 산소길, 근남면에서는 복개산, 복주산으로의 연계로 김화권역의 중심시가지 랜드마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현중 철원군수는 "이번 서면 달빛공원 주변정비사업을 김화권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실있는 실시설계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며, 빠른시일내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서면 와수 중심시가지와 연결된 랜드마크 조성 및 특별한 걷기코스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세나/기자

## 정선군, 2022년 임인년(壬寅年) 군민행복 군정 내실 추진

정선군은 2022년도 임인년(壬寅年) 행복찬 정선을 디자인하기 위한 군정 주요업무보고회를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회는 정선군의 업무 여건을 진단하고 2022년도 군정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진 일상을 조기에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기존 부서별 업무보고 형식을 탈피하여, 부서별 핵심사업에 대하여 전 부서장들이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토론을 통하여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조혜영/기자

군은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정선을 위한 소통공감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는 것은 물론 군의 미래 설계를 위한 사업들이 분야별, 지역별, 세대별로 치우침이 없도록 균형 있는 군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살기좋은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한 시책, 앞서가는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시책, 웰리스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강화사업 등 160개 사업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화천군 2022년 신규사업 실탄 1,952억원 장전완료

올해 화천군이 내년부터 연차별로 시작되는 주요 22개 현안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총 1,952억원을 확보했다.

신규사업 대부분이 정주여건 개선, 기반시설 조성 등이어서 정경역인 화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22개 사업의 국·도·군비와 기금 등 확정된 총 사업비 규모는 1,952억4,500만원이다.

이중 군비를 제외한 국비, 도비, 기금 등 외부 확보된 예산 규모는 총 1,416억7,6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접경지역 생활기반(LPG)조성 등 총 사업비 712억원 규모의 핵심 숙원사업이 내년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화천읍 중리 일대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관 명품화 사업은 27사단이 해제되는 사내면 사창리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가족분노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 장마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산양·사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199억원 규모의 사업도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다.

최전방 지역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 출입 간소화, DMZ 평화의 길 인프라 조성사업도 내년 새 전기를 맞게 됐다. 민통선 출입이 간소화되면, 백암산 케이블카 등 안보관광 콘텐츠 활성화 효과까지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하반기 실내체육공간 조성, 신재생 융복합 에너지 지원, 화천형 온종일 스마트 초등돌봄 프로젝트, 다함께 돌봄사업 학교 돌봄터 사업, 거례리

사랑나무 명품화 프로젝트 등의 사업비도 올해 확정됐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극복, 주민 삶의 질 향상, 아이 기르기가 가장 좋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살펴가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 강원 횡성형 일자리 사업, 한단계 도약한다!

강원 횡성형 일자리 사업이 (주)부솔이피티의 합류로 내년 더욱 도약한다. 12.29., 산업통상자원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주)부솔이피티를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강원 횡성형 일자리 사업계획' 변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 인해 강원 횡성형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은 기존 7개 기업에서 8개 기업으로 늘어나며, 투자금액은 기존 742억원에서 883억 원으로, 고용규모는 기존 503명에서 523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주)부솔이피티는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모터 생산하는 기업으로 2020년부터 (주)디피코에 자사 모터를 제조 및 공급하고

있다. (주)부솔이피티는 강원 횡성형 일자리 사업의 성과물인 '포트로'를 (주)디피코와 함께 본격 양산하기 위해 횡성 이전 결정을 한 후 지난 2월에 투자협약식을 갖고, 이어 지난 9월 입주계약까지 완료하였다.

강원 횡성형 일자리 사업의 변경(안)도 최종 승인됨에 따라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주)부솔이피티의 강원 횡성형 일자리 사업 추가 참여로 강원도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존 참여기업들의 이전도 내년에는 더욱 가속화시켜,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북 동촌체험휴양마을

美에 반하다

## ‘자랑스러운 충북도민’ 수상자 선정

중국발 요소수 품귀상황 시 도내 요소수 지원 기업 대표 등 3명

충북도는 28일 ‘자랑스러운 충북도민’ 수상자로 도내 요소수 기업 대표 3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도민과 특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기술을 쌓아온 장인 등 타의 귀감이 돼 충북의 위상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모범도민을 발굴해 표창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자랑스러운 충북도민 수상자는 △(충주시)유로케미칼 이광춘 대표, △(보은군)켄켄스틸글로벌 김장욱 대표, △(음성군)㈜경원위터킴 권용철 대표이다. 수상자들은 친환경 요소수 생산기업 대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 시 코로나19 및 원료 수급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운수업체 및 건설기계, 특별운송 차량 등의 운행 등을 위해 충북도와 군, 도내업체에 우선 공급해 위기상황 극복 및 수급 안정에 기여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자랑스러운 충북도민’ 표창은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별도의 표창장 수여식을 갖지 않고 수상기업체를 방문해 표창패를 직접 전수했다.

고정화/기자

## 화성시 홍보대사 김준호 선수, 연탄 3,000장 기부

화성시 홍보대사인 김준호 선수(펜싱)가 화성시 관내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3,000장을 기부했다.

27일 김준호 선수와 화성시 펜싱부 선수들을 비롯해, 화성시장애인체육회, 화성시 펜싱협회 봉사자,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하모니봉사단 등이 참여했다.

이날 기부된 연탄 3,000장은 관내 소외계층 4가구에 전달됐다.

김준호 선수는 “화성시민의 성원으로 펜싱 전용경기장 등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며 “최근 날씨가 무척 추워졌는데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가 건립된 펜싱 전용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화성시 직장운동부 펜싱부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김준호 선수가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 송재호 선수가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양시현/기자



person  
사람&사람

문화매일 13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 기부 천사 70대 할아버지, 공병 수거금 모아 안성시에 쌀 기부

70대 할아버지가 지난 24일 안성시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 20kg 10포를 기탁했다.

주인공은 안성시 공도읍에 사는 송대성 씨(71)로 1년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열심히 마을 주변을 돌며 수집한 공병을 팔아 쌀을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송 할아버지는 “하나씩 공병을 수거해 모은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어르신 소중함 마음이 담겨 더욱더 뜻깊게 느껴진다. 전달해 주신 기부물품은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며 “이번 어르신의 기부로 우리 지역에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혜영/기자



## 이해자 전남도의원, 청소년 1,000이 직접 뽑은 '제6회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영예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해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하는 ‘제6회 청소년희망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대상을 광주·전남·전북을 통틀어 유일하게 혼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청소년희망대상’은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증진, 인권향상 등 청소년과 관련한 업적을 이룩하거나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게 수여된다.

‘청소년희망대상’ 심의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청소년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친 기여도를 평가하고 1000명의 청소년 선정위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해자 의원은 청소년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 ‘전라남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 부모인 가정을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출산, 양육,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았다.

또 이 의원은 최근 ▷제11회 우수의정대상, ▷제13회 지방자치경영대상 광역의회 의정대상,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등 좋은 성과를 거두 연말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재선의원 출신인 이 의원은 제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지역에서는 조용히 일 잘하는 도의원으로 정평이 나왔다.

이해자 의원은 “1000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투표를 선정하는 청소년희망대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해 정책발굴과 복지 실현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만/기자

## 김진하 양양군수, 2021년 한국지방신문협회 한국지방자치대상 수상

김진하 양양군수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년 한국지방신문협회 한국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기초단체장 부문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역발전의 공로가 큰 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시상했으며, 김진하 양양군수는 전국 8명의 기초단체장 시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군수는 2014년 7월 민선 6기를 시작으로 현재 민선 7기에 이르기까지 △서평 해양레저 도시로의 도약 △도시정비 및 전략적 교통망 확충 △군 단위로는 이례적인 인구 증가 등 공약사항의 높은 달성률로 주민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1979년 낙산지구가 도립공원이 지정된 이래 40년 만에 낙산도립공원이 해제되며 기여했으며, 이로 인해 생활형 숙박시설 등 민간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적한 해변이던 현남면 인구가 ‘양리단길’이라는 서평명소로 탈바꿈하며 예스러움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뿐만 아니라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택시개발 등 정주여건 개선, 서평 인프라 조성 등 관광활성화로 전입인구가 늘어나면서 2008년 이후 13년만인 올해 5월, 인구 2만8천명을 회복하고

인구증가세를 이어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김진하 군수는 “양양군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노력한 결과 이런 상을 받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만식/기자

## 제주 청년 2명, '2021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오준서·정은우,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인재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 대한민국 인재상' 대학생·청년일반인 부문에서 제주 청년 2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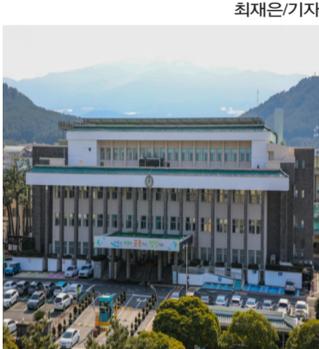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각자의 분야에서 미래인재가 되기 위해 도전해나가는 청년 우수 인재를 발굴해 성장 가능성을 격려하고 시상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인재 선발 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만 15세 이상 ~ 29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역별 심사와 중앙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주도는 지난 9월 지역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후보자 4명을 추천했으며,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오준서(20세) 군과 정은우(22세) 양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수상자들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및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올해 수상자인 오준서 군은 2년



최재은/기자

## 광명시청소년재단 허영주 청소년지도사, 2021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경기도 광명시 (재)광명시청소년재단은 허영주 청소년지도사가 ‘2021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발굴해 시상하고,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인재 선발 프로그램이다. 21년도는 ‘꿈과 열정을 가진 당신이 대한민국 인재입니다’라는 심사요소를 채택하였으며 고교생 50명, 대학생과 청년일반 50명으로 총 100명의 청년 우수인재를 발굴했다.

(재)광명시청소년재단 소속 허영주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들이 보이지 않는 가능성에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연은 작은 성과를 가지고, 또 다음 기회에 도전하며 주변사람들과 지혜롭게 성장하며 한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청소년들을 지도해 왔다.

수상경력은 20년도 코로나라는 국가대재난 상황에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비대면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비대면 프로그램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청년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이바지하고, 광명시 청소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며 성실한 근무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되어 “2019년 노사협력 활성화 유공 표창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게 됐다.

허영주 청소년지도사는 “지혜와 열정을 가진 청년,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청년이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주변사람들과 지혜롭게 성장하고 도전하는 청소년들을 양성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명시청소년재단은 더 많은 청소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용민/기자

‘2021 대한민국인재상’ 경남교육청 5명 수상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21 대한민국인재상’ 고교분과에 경남지역 고등학생 4명과 대학생·청년일반분과에 교사 1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영예의 수상자는 윤준호(경남로봇고), 장나라(삼천여고), 장지원(경남과학고), 차민준(창원과학고) 학생과 박송은(진해용원고) 교사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다양한 분야의 청년 우수 인재(만15세~29세)를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매년 100명(고등학생 50명, 대학생·청년일반 5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된다.

경남로봇고 윤준호 학생은 자신의 관심분야인 로봇분야와 관련한 발명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제 18회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음성인식 분리 수거함’을 제작하여 교육부장관상, 제19회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사물인터넷 소화기’를 제작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등 자신의 꿈을 향한 도전을 높게 인정받았다.

삼천여고 장나라 학생은 자신의 꿈인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발명가’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제32회~제33회 대한민국 학생 발명품 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인 교육부장관상, 2020년 한국 학생 창의력을 올림픽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발명 분야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창원과학고 장지원 학생은 제15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 2021년 국제원격전문올림피아드(IRA) 은메달 수상, ‘위성수신안테나접시를 활용한 전파망원경 제작 및 펄서 관측연구’로 제67회 전국과학전람회 지구 및 환경부문 학생부 특상, ‘나선은하의 HII영역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은하 물리량의 상관관계 파악’으로 제22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은상 등 천문학 관련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창원과학고 차민준 학생은 자신의 꿈인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환경을 보전하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 그린 수소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미생물이 미세플라스틱을 분해하면서 나오는 전자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연료전지 개발을 진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 다수상 수상 및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혁신적 포용 인재로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진해용원고 박송은 교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창의력페스티벌대회 등 학생을 지도하여 다수의 학생이 수상 및 학생 특허 출원으로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안태환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수상이 수상자들에게는 더 큰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갖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광남/대기자

# 딜쿠샤(Dilkusha) 기증 유물 전시 '딜쿠샤 컬렉션 - 추억과 기억, 메리 린리 테일러의 그림'展 개막

딜쿠샤가택연금 당시 메리가 일제로부터 지켜낸 그림 등 총 50여 점 공개

서울역사박물관 분관인 딜쿠샤에서 12.28(화)부터 내년 6월 26일까지 딜쿠샤 기증 유물 작은 전시 '딜쿠샤(Dilkusha) 컬렉션 - 추억과 기억, 메리 린리 테일러의 그림'展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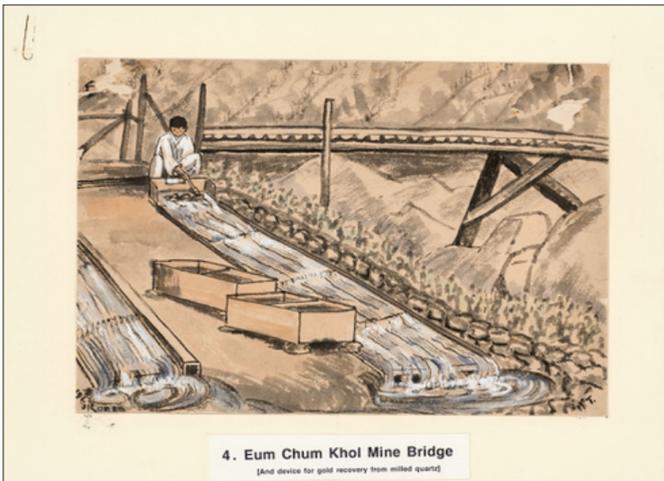
서울역사박물관은 테일러 부부의 손녀인 제니퍼 린리 테일러(Jennifer Linley Taylor)가 기증한 테일러家的 유물을 3,000점 넘게 소장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유물들을 매해 기증 유물 작은 전시를 통해 딜쿠샤 2층 기획전시실에서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에는 그 첫 번째 전시로 '추억과 기억, 메리 린리 테일러의 그림'展을 마련하였다. 이번 전시는 한국에서 1917~1942년 까지 살았던 앨버트 와일더 테일러(Albert Wilder Taylor)의 부인 메리 린리 테일러(Mary Linley Taylor)가 그린 그림 중 약 50여 점을 엄선하여 총 2회에 걸쳐 전시한다.

결혼 전 연극배우 '메리 린리(Mary Linley)'로 활동한 메리는 결혼 후에는 수년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술학교를 다녔는데, 그림에도 남다른 애정과 열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그림들을 통해 그녀의 예술적 감각을 살펴 볼 수 있다.

전시는 메리 린리 테일러의 그림을 1942년 이전 한국 거주시기와 1942년 이후 미국 거주시기의 두 시기로 나눠 조망해 본다.

특히 '한국 인물 초상화'들은 1941년



음천골 광산의 다리

말 남편 앨버트가 일제에 의해 수용소에 구금되고 메리가 가택 연금 되었던 시기, 딜쿠샤를 수색하던 일본군의 눈을 피해 2층 거실에 잘 숨겨 두었다. 이후 딜쿠샤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던 공사방의 바지 속에 이 초상화들을 숨겨 지인의 집으로 보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보다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메리 린리 테일러(Mary Linley Taylor)는 자신들의 집에 페르시아어로 기쁜 마음이라는 뜻의 '딜쿠샤(Dilkusha)'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인 장본인이기도 하다. 한국에 오기 전에 메리는 인도에서 딜쿠샤 궁전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 언젠가 자신에게도 집이 생기면 '딜쿠샤(Dilkusha)'라는 이름을 붙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후 광산사업자인 앨버트 와일더

테일러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신선 생활을 시작한 테일러 부부는 행촌동(杏村洞)의 은행나무 옆에 그들의 두 번째 집을 지으면서 '딜쿠샤'라고 이름 붙였다.

서울역사박물관 김용석 관장은 "이번 딜쿠샤 기증 유물 전시는 연극배우로도 활동한 메리 린리 테일러의 예술적 재능을 그녀의 그림들을 통해서 접해볼 수 있는 기회"라며, "매해 딜쿠샤의 다양한 기증 유물들을 선보일 예정으로, 전시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관람객들이 딜쿠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시는 딜쿠샤 온라인 사전 예약 후 2층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 시간은 평일 및 주말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최광수/기자

## 2022년 경기예술지원 공모 시행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일시: 12월 29일(수) 14시, 온라인 줌(ZOOM) 회의] 공모안내 설명 영상자료 업로드 [일시: 12월 30일(목),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일시: 21.12.28.(화) 서류접수기간: 21.12.30.(목) ~ 22.1.14.(금) 17시 / 선정결과발표: 22.3.3.(목) 예정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현)에서는 코로나19의 긴 지속으로 모든 예술활동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경기도 예술인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과 발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2022년 경기예술지원'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2022년 경기예술지원'은 ▲기초예술창작지원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공연장상주단체지원 등 3개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공모는 전년도 사업평가를 통한 예술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구조를 집중화·단순화하였고, 전반적인 사업별 지원규모를 상향함으로써 공모 선정금액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기초 예술 창작 지원 (구 지금예술창작지원)》은 문학, 시각, 공연예술 장르별로 예술창작 준비부터 창작품 실현·제작 및 성과 발표까지 지속가능한 단계별 과정지원 체계로 설계하였다. 또한, 전년도 장르별 신청접수 결과와 예술인들의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 준비' 사업을 추가하였고, 공연예술 분야 초연(구 제작초연) 지원 자격을 단체에서 개인으로 확대하였다.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예술 모든 분야의 창작과 발표 활동을 지원한다. 2021년 기준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9개 시·군(가평군 등)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접 공모를 시행하고, 기초문화재단이 소재한 22개 시·군(수원시 등)은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매칭을 통해

기초문화재단에서 자체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연장상주단체지원》은 공공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창작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제작환경 조성, 지역민에 대한 우수공연서비스 및 관객개발 프로그램의 초점을 맞춰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수준 높은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연장과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참가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 및 예술단체로 세부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 3개 부문(기초예술창작지원, 모든예술31, 공연장상주단체지원) 모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s://www.ncas.or.kr> 통해 2022년 1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하며, 접수된 신청 사업계획은 전원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결과는 2022년 3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지원에 대한 설명회는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ZOOM회의)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회의 주소는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내 경기예술지원의 사전공고 및 본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 포천아트밸리, 크리스마스 맞아 특별 콘서트 개최

포천시 대표 관광지인 포천아트밸리에서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 콘서트가 개최됐다.

포천아트밸리 내 포천관광정보센터 청년여행LAB(1층)에서 개최된 이번 특별 공연은 포천아트밸리를 방문하는 관람객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외부활동과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든 관내 장애인분들을 초청해 함께 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자 기획됐다.

공연은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2시와 5시 2회 진행됐다. 특별 공연을 풍성하게 채워줄 출연진으로는 '이다 뮤지컬'에서 활동 중인 순영일, 한지영, 이든, 이승우 등 4명의 현역 뮤지컬 배우와 제29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대종음악 개인 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송우고 3학년 한지효 학생으로 크리스마스 캐럴, 겨울왕국 OST와 그 외 다양한 뮤지컬 곡을 선보였다.

포천아트밸리 관계자는 "포천아트밸리에서 준비한 특별 공연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따뜻한 연말이 되시기를 바란다"라며 "포천아트밸리는 다가오는 2022년에도 복합문화예술공간의 명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안전한 공연 진행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한영기/기자

## 순천 인애원, '세상밖으로' 홈리스 미술관 전시회 열어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30일까지 제3회 홈리스 미술관 전시회가 열린다.

홈리스 미술관은 보건복지부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018년부터 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생활인의 치유 프로그램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숙인의 문화 감수성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노숙인시설 인애원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서 12명의 작가들이 노숙인으로 살았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한 작품 60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직접 그린 초크아트와 감정해소 미술 등의 작품활동을 통해 스스로 치유의 시간을 갖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존감 회복의 기회를 갖는다.

문형철 인애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애원 생활인이 자존감을 높이고 정서적 지지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로 나아가 담당하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숙인의 재활자립 및 정서·심리적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고 노숙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재활 기반을 조성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 수원미술 및 미술관 연구집 '수원미술연구' 제5집 발간

1부 수원미술연구, 2부 미술관 연구, 3부 부록으로 구성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은 수원미술사 정립을 위한 '수원미술연구' 제5집을 발간했다.

수원시립미술관은 수원미술과 미술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기 위해 '수원미술연구'를 매해 발간하고 있다. 이번 제5집은 1부 수원미술연구, 2부 미술관 연구, 3부 부록 미술관 소장 자료 나해석 사진첩 공개로 구성됐다.

1부 수원미술연구에서는 수원 출신의 월북 조각가 박승구(1919~1995)의 생애와 작품 그리고 그가 북한에서 쓴 비평을 비롯한 글 16편의 전문을 함께 실어 공개한다. 이와 함께 연구자 홍성후(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의 '조각과 공예의 경계: 박승구의 행정과 예술에 대한 검토는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이번 연구는 '김복진의 제자' 혹은 '월북미술가' 정도로

알려진 박승구에 대한 최초 단독 연구로 우리나라 근현대미술사에서 차지하는 박승구의 가치를 재검토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2부 미술관 연구는 'Beyond 코로나 19'를 주제로 팬데믹 이후를 대비 혹은 맞이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자 이다민(수원대학교)은 '비(非)대면 예술 감상에 대한 미학적 고찰'을 주제로, 유동환(건국대학교 교수)은 '코로나 공존시대, 박물관-미술관의 디지털 전환의 모색'을 주제로, 연구자 김수진(서울교육대학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미술관 교육의 재개념화: 수원시립미술관의 교육 방향 제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심도 있는 연구가 수록됐다.

마지막 3부 부록으로는 수원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나해석 사진첩'이 간략한 설명과 함께 지면 순서대로 전격 공개된다. '나해석 사진첩'은 미술사뿐 아니라 여성사, 정치사, 생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소중한 자료로, 이번 연구집을 통한 공개 이후 다양한 관점에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김진엽 수원시립미술관장은 이번 연구집 발간에 대해 "수원미술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아카이브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수원미술연구' 제5집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라이브러리에서 열람 가능하다.

조혜영/기자



## 강릉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온라인 개관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이 구)강릉예술창작인촌에 조성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가 27일(월) 온라인 개관한다. '꿈꾸는 예술터'는 문체부 공모사업 일환으로 현재 전국 7개 지역(전주, 성남, 강릉, 밀양, 청주, 장수, 고흥)에서 운영 중이다.

강릉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의 주요 대상은 어린이·청소년으로, 지역 예술가(예술강사) 기반 시각예술 중심으로, 창의와 자율성을 중시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공간과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수업 시간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공간은 본관 1층과 3층, 별관,

야외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인·의·예·지·신(미술·융합예술·미디어·건축·메이커)' 다섯개의 교육공간과 모든 과정이 기록되는 아카이브룸, 전시와 소통의 장인 아트라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창의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양질의 교육과 다양한 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융복합된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지역의 새로운 예술교육의 방향을 선도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부산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음악으로 하나 되다!

음악으로 만나는 두 도시 이야기! 부산MBC 특집 다큐 '항구의 랩소디'

부산과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코로나 치유와 희망의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

부산시는 부산-상트페테르부르크 자매도시 음악 협연을 담은 부산MBC 특집 음악다큐멘터리 '항구의 랩소디'가 오는 28일 오후 6시 5분에 방영된다고 밝혔다.

'항구의 랩소디', 부산-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으로 하나 되다'에서는 부산과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각각 상징하는 아름다운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부산시립교향악관 현악단이 연주하는 국악과 러시아 시너지 오케스트라의 현악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20세기 러시아 음악의 거장 쇼스타코비치의 '왈츠'가 두 도시의 협연을 통한 하모니로 펼쳐지고, '부산찬가'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시가'도 각각 교차 연주된다. 이 밖에도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국악으로, 러시아 국민노래로 알려진 '백만송이 장미'의 이색적인 퓨전연주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자매도시 간 음악공연뿐만 아니라, 두 도시의 대표 랜드마크 소개를 하여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제한된 사람들의 여행 욕구를 충족시키고, 두

도시 간의 지속적인 문화교류역사까지 재조명하는 등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인기가 높고 부산대 노어노문학과 출신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인연이 있는 영화배우 허성태 씨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그는 두 자매도시가 들려주는 치유와 희망의 합주 이야기를 통해 올 연말 최고의 감동이 시청자들에게 찾아갈 것을 예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예전처럼 직접 얼굴을 마주할 수 없지만, 부산-상트페테르부르크 비대면 음악교류회 특집 방송을 통해 두 도시가 하나 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문화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매도시 간 유대감을 다지고,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유라시아 지역 주요 도시들을 방문하여 문화·예술·인적교류를 통해 부산을 홍보하는 시민참여형 공공외교 행사로 2016년부터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이 함께 추진 중이다.

남영기/기자

# 숙원 풀어내며 '대한민국 중심'에 선 충남

양승조 지사, 송년 기자회견...올해 성과내년 방향 등 밝혀



위해 전국 최초로 양극화해소위원회 구성하고, 청년 미래비전을 선포하는 등 청년 정책도 강화했다.

이에 더해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추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사업도 펼쳤다.

▲ 미래 성장동력 확보하고 국내의 기업 유치

활력 넘치는 '더 행복한 경제 충남' 구현도 올 한해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를 육성하고 탄소 저감 건설소재 특구 지정 등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국내 기업 711개사 5조 3000억 원을 유치해 1만 5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 10개사 3억 1550만 달러 유치로 663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수출은 30개월 연속 전국 2위로 무역수지 전국 1위를 지켜내며,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으로 노동존중사회 조성의 초석도 다졌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윈스톱 고용 서비스를 통해 고용률은 전국 3위를 유지했다.

2030 충남 농정미래비전을 선포하고, 농어업·농어촌 분야 지원도 강화 중이다.

▲ 여유롭고 풍요로운 '문화 충남' 구현

문화 분야에서는 '충남 2030 문화비전' 실행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립미술관, 충남스포츠클럽 등 충남의 대표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내포문화숲길은 국가숲길로 지정받고, 서천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으며, 해미성지는 국제성지로 지정됐다.

충남의 자연과 문화유산이 안팎에서 대대적으로 인정받았다.

충남형 스포츠 복지 정책으로 추진 중인 '걷주'앱은 가입자 21만 명을 넘어섰다.

▲ 전국 첫 자치경찰위 출범·탄소중립 선도

도는 올해 안전하고 쾌적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했다.

전국 처음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시키며 자치경찰 체계를 선도적으로 확립했다.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해 새로운 이재민 구호 체계도 마련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충남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 그린경제 선도모델을 제시했다.

5월에는 P4G 서울 정상회의, 10월에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연2연합 지역포럼에서 탈석탄 정책을 세계에 소개하며 국제 기후네트워크를 주도했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2025년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을 시작했으며,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협약 체결 등 깨끗하고 안전한 전환을 위한 성과도 거뒀다.

양 지사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도 충남도정은 더 행복한 복지, 경제, 문화, 안전·환경 충남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지방정부로서, 도민 누구나 양질의 삶을 누리는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구현해왔다"고 자평했다.

▲ 숙원 사업 해결 매진 "환경해 중심 도약"

내년에는 숙원 사업 해결에 매진, 환경해권 중심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진다.

충남 서산공항 건설과 충남혁신도시 완성, 부남호 역간적,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 복원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탄석탄 지역 대체 산업 발굴, 육사 논산 유치,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보령 머드엑스포와 계동세계문화엑스포 등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30년 묵은 숙제를 푼다.

▲ 대한민국·충남 미래발전 과제, 국가 정책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행복과제를 고도화 해 무상보육 전면 시행과 충남관광재단 개소, 천안아산 KTX 집적지구 활성화, 재난안전전문기관 설립 추진, 탄소중립연수원 건립 등 민선7기 충남 고유 정책 및 사업을 심화·발전시킨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전국 확대,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체계 구축, 수도권 규제 강화 등 3대 위기 극복 시책 및 환경권 보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민선7기 충남의 도전과 혁신은 국가 정책으로 반영시킨다.

이와 함께 중부권 거점 국립재난전문 종합병원 설립, 환경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등 국가와 충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는 새 정부 지역공약으로 포함시킨다.

▲ 철저한 방역관리 바탕 '일상 회복' 선도

도는 지난해 우한교민을 수용하고, 올해 해수욕장 방역 모델을 제시하며 K-방역을 견인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일상 회복을 선도한다.

안전적인 조사와 치료 체계 구축을 통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과 생활문화 의식 전환을 통해 점진적이고 포용적인 회복을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양 지사는 올해 열리는 피파 월드컵을 언급하면서 "축구에서는 '시작하고 5분, 끝내기 전 5분을 조심하라'라는 격언이 있다"라며 "임기가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중요 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부터 시작한 민선7기 충남과 220만 도민의 하나된 팀플레이는 2022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승리로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도 충남도정은 더 행복한 복지, 경제, 문화, 안전·환경 충남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지방정부로서, 도민 누구나 양질의 삶을 누리는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구현해왔다"고 자평했다.

▲ 숙원 사업 해결 매진 "환경해 중심 도약"

내년에는 숙원 사업 해결에 매진, 환경해권 중심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진다.

충남 서산공항 건설과 충남혁신도시 완성, 부남호 역간적,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 복원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탄석탄 지역 대체 산업 발굴, 육사 논산 유치,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보령 머드엑스포와 계동세계문화엑스포 등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30년 묵은 숙제를 푼다.

▲ 대한민국·충남 미래발전 과제, 국가 정책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행복과제를 고도화 해 무상보육 전면 시행과 충남관광재단 개소, 천안아산 KTX 집적지구 활성화, 재난안전전문기관 설립 추진, 탄소중립연수원 건립 등 민선7기 충남 고유 정책 및 사업을 심화·발전시킨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전국 확대,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체계 구축, 수도권 규제 강화 등 3대 위기 극복 시책 및 환경권 보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민선7기 충남의 도전과 혁신은 국가 정책으로 반영시킨다.

이와 함께 중부권 거점 국립재난전문 종합병원 설립, 환경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등 국가와 충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는 새 정부 지역공약으로 포함시킨다.

▲ 철저한 방역관리 바탕 '일상 회복' 선도

도는 지난해 우한교민을 수용하고, 올해 해수욕장 방역 모델을 제시하며 K-방역을 견인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일상 회복을 선도한다.

안전적인 조사와 치료 체계 구축을 통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과 생활문화 의식 전환을 통해 점진적이고 포용적인 회복을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양 지사는 올해 열리는 피파 월드컵을 언급하면서 "축구에서는 '시작하고 5분, 끝내기 전 5분을 조심하라'라는 격언이 있다"라며 "임기가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중요 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부터 시작한 민선7기 충남과 220만 도민의 하나된 팀플레이는 2022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승리로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도 충남도정은 더 행복한 복지, 경제, 문화, 안전·환경 충남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지방정부로서, 도민 누구나 양질의 삶을 누리는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구현해왔다"고 자평했다.

▲ 숙원 사업 해결 매진 "환경해 중심 도약"

내년에는 숙원 사업 해결에 매진, 환경해권 중심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진다.

충남 서산공항 건설과 충남혁신도시 완성, 부남호 역간적,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 복원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탄석탄 지역 대체 산업 발굴, 육사 논산 유치,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보령 머드엑스포와 계동세계문화엑스포 등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30년 묵은 숙제를 푼다.

▲ 대한민국·충남 미래발전 과제, 국가 정책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행복과제를 고도화 해 무상보육 전면 시행과 충남관광재단 개소, 천안아산 KTX 집적지구 활성화, 재난안전전문기관 설립 추진, 탄소중립연수원 건립 등 민선7기 충남 고유 정책 및 사업을 심화·발전시킨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전국 확대,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체계 구축, 수도권 규제 강화 등 3대 위기 극복 시책 및 환경권 보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민선7기 충남의 도전과 혁신은 국가 정책으로 반영시킨다.

이와 함께 중부권 거점 국립재난전문 종합병원 설립, 환경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등 국가와 충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는 새 정부 지역공약으로 포함시킨다.

▲ 철저한 방역관리 바탕 '일상 회복' 선도

도는 지난해 우한교민을 수용하고, 올해 해수욕장 방역 모델을 제시하며 K-방역을 견인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일상 회복을 선도한다.

안전적인 조사와 치료 체계 구축을 통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과 생활문화 의식 전환을 통해 점진적이고 포용적인 회복을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양 지사는 올해 열리는 피파 월드컵을 언급하면서 "축구에서는 '시작하고 5분, 끝내기 전 5분을 조심하라'라는 격언이 있다"라며 "임기가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중요 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부터 시작한 민선7기 충남과 220만 도민의 하나된 팀플레이는 2022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승리로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도 충남도정은 더 행복한 복지, 경제, 문화, 안전·환경 충남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지방정부로서, 도민 누구나 양질의 삶을 누리는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구현해왔다"고 자평했다.

▲ 숙원 사업 해결 매진 "환경해 중심 도약"

내년에는 숙원 사업 해결에 매진, 환경해권 중심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진다.

충남 서산공항 건설과 충남혁신도시 완성, 부남호 역간적,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 복원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탄석탄 지역 대체 산업 발굴, 육사 논산 유치,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보령 머드엑스포와 계동세계문화엑스포 등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30년 묵은 숙제를 푼다.

▲ 대한민국·충남 미래발전 과제, 국가 정책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행복과제를 고도화 해 무상보육 전면 시행과 충남관광재단 개소, 천안아산 KTX 집적지구 활성화, 재난안전전문기관 설립 추진, 탄소중립연수원 건립 등 민선7기 충남 고유 정책 및 사업을 심화·발전시킨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전국 확대,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체계 구축, 수도권 규제 강화 등 3대 위기 극복 시책 및 환경권 보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민선7기 충남의 도전과 혁신은 국가 정책으로 반영시킨다.

이와 함께 중부권 거점 국립재난전문 종합병원 설립, 환경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등 국가와 충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는 새 정부 지역공약으로 포함시킨다.

▲ 철저한 방역관리 바탕 '일상 회복' 선도

도는 지난해 우한교민을 수용하고, 올해 해수욕장 방역 모델을 제시하며 K-방역을 견인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일상 회복을 선도한다.

안전적인 조사와 치료 체계 구축을 통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과 생활문화 의식 전환을 통해 점진적이고 포용적인 회복을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양 지사는 올해 열리는 피파 월드컵을 언급하면서 "축구에서는 '시작하고 5분, 끝내기 전 5분을 조심하라'라는 격언이 있다"라며 "임기가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중요 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경북도, 80%할인 공유차량 서비스로 지역 관광 북업

3개월 여 만에 성황리에 사업조기 종료, 전년 동기 대비 관광객 67% 늘어

경상북도는 지난 8월부터 국내 공유차량 서비스업체 쏘카(SOCAR)와 공동으로 지역을 찾는 여행객 교통편의 증진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대요금의 80%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해 관광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 등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경북은 전국 문화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강·산·해 관광자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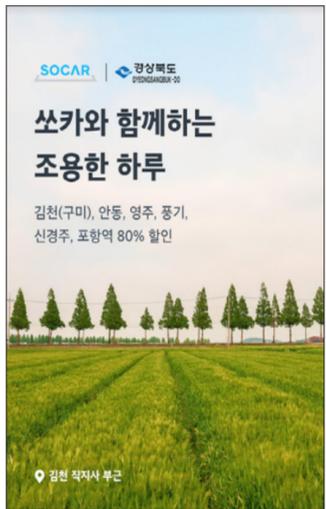
하지만, 수도권과의 이동거리가 멀고 주요 관광지와의 교통 불편으로 경우·안동 등 몇 개 시군을 제외한 북부권\*·중서부권\*\* 등은 상대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또 올해 초 KTX-이음(청양리-안동)이 개통되면서 수도권과의 거리가 2시간 이내로 단축되고 코로나로 비대면·안전·힐링 등의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경북도는 발 빠르게 쏘카와 공동으로 영주·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권과 김천·구미 주변 중서부권 등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공유차량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지난 10월에는 공유차량 대수(372대→529대)와 대기 장소(56개소→80개소)를 40%정도 늘리는 등 관광수요가 증가했다.

또 신경주역과 '갯마을 차차차', '동백꽃 필 무렵' 등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 인기 관광지가 급부상한 신포항역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면서 사업착수 3개월 만에 조기 종료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이용객이 67%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내년에는 공유차량 이용객 증가와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쏘카와 함께 지역 렌트카 업체와의 연계방안 협의, 차박 가능 차량 확보, 주요관광지 미션게임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과 경구용 치료제 확보 등이 완료되는 내년에는 관광산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 때까지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북에 머물고 쉬어갈 수 있도록 관광 전방을 살피고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KTX(김천구미역·경주역·포항역) 이용객 50% 할인과 KTX-이음(풍기역·영주역·안동역) 이용객 1만원 행사를 실시해 관광객 유입을 시도했고, 경북관광 100선 쉼터 투어, 경북e누리 등 관광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추진했다.

이민영기자

**E**  
economy  
경제

문화매일 15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청소년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

광명시가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들을 지원하고자 전액 시비로 마련한 교육재난지원금을 2만9,962명의 청소년들에게 최종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로 1인당 10만원씩 총 29억 9620만원을 지급했다.

7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내국인 2만9,884명과 외국인 78명에게 지급했다.

광명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3월 지자체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11월 조례 일부 개정으로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청소년에게도 확대 지급했다.

시는 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1회 연장했으며, 학교 가정통신문, 광명소식지, 광명시 공식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했다. 또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들의 신청 편의를 도왔다.

광명시 관계자는 "올해 지급한 교육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지친 각 가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기에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평생학습도시 광명시는 학생들이 차별없이 배우의 권리를 누리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내년에 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교육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민영기자

## 안성시, 안성축협 비대면 '스마트 한우 경매시장' 임시 개장

안성시와 안성축협은 한우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대면 '스마트 한우 경매시장을' 구축하고 지난 27일 임시 개장해 시운전에 들어갔다.

이날 한우 송아지 총 202두(암소72, 수소130)가 출품됐으며, 김보라 안성시장, 정광진 안성축협조합장, 출품농가, 종재인,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 1일 운영 가능 두수는 총 354두로 송아지 234두, 큰소 120두이며 안성축협 가축시장이 열리는 매일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에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스마트 한우 경매시스템에 접속해 경매장면을 관전하고 우수한 소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다.

안성시는 소 사육두수 10만두가 넘는 전국 최대의 축산지역이나, 그간 안성축협 가축 경매시장은 1회 90두 이내 소규모 경매가 가능한 수기 경매시장으로서, 경매거래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안성시 다수의 소 사육농가들이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며 타 지역에 위치한 가축경매시장을 이용해 왔다.

이에 최근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위해 안성시와 안성축협이 함께 손을 맞잡고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경기도

최초로 스마트 한우 경매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정광진 안성축협조합장은 "휴대폰 하나로 한우 경매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 응찰이 가능함에 따라, 그동안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최신 차세대 시스템으로 탈바꿈했다"며 "가축시장 운영 선진화에 관심이 되는 물론 각종 펠의시설과 환경개선, 최신 설비 구축으로 전국 가축시장 운용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한우 경매시장 개장은 코로나 시대에 안성시 축산업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큰 성과"라며, "최근 한우 수급 불안과 코로나19로 인해 농장 경영 및 한우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혜영기자

## 부산광역시, 러시아 의료관광 시장 개척 박차

부산광역시는 지난 20일 베스코에서 '2021 러시아 해외환자유치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부터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의료관광 해외거점 중심으로 해외환자유치 상담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번 상담회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롯데호텔과 부산 베스코 화상전문스튜디오 및 상담장과 온라인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열렸다. 부산시 소재 종합병원을 비롯해 중증환자 중심 의료기관 등 10개소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유즈노사할린스크, 하바롭스크의 해외환자 송출업체, 관련기관 등 20곳이 참가하며 부산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특성별 상담을 진행했는데, 특히 암 등의 중증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목에 대한 60여 건의 구체적 상담을 진행했다.

러시아는 부족한 중증치료 의료 서비스로

인해 지역적으로 가까운 부산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큰 편이며, 특히 고비용 고난도의 정형외과 수술, 암 수술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유즈노사할린스크(LLC "DREAM"), 하바롭스크(TRAVEL ZARUBEZH CO.,LTD) 등 2곳의 주요 에이전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해외 거점 및 부산의료관광의 거점 확대 통해 해외환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유장 부산시 마이스산업국장은 "중증질환 치료, 건강검진 등 부산지역의 특화 의료기술의 집중 홍보를 통해 코로나 이후 부산 해외환자 유치의 가장 중요한 지역인 러시아 의료관광 시장을 선점하여 부산의료기술 수출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 남해군 '도시재생 뉴딜 전통시장 활성화교육' 마무리

남해군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남해 전통시장 점포 대상 활성화 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시작돼 11회 동안 남해 전통시장 상인과 남해읍내 상인, 예비창업자 등 33개 업체가 참여했다.

교육에 참가한 업체들은 판로개척과 유통, 마케팅, 정책자금, 온라인 배송 등에 대한 실전 맞춤형 상담을 받았으며, 가격표시판, 매뉴얼, 배송사업 등에 대한 전문 지식도 익혔다. 애로 사항에 대한 개별 맞춤형 상담도 진행됐다.

이번 컨설팅에는 창원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겸임교수이자 창원시 명서시장 육성사업단장인 장명진 단장을 비롯한 전문 컨설턴트 4명이 현장을 직접 누렸다. 전통시장 등 지역 상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매뉴얼과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도 개발했다.

이번 컨설팅에 참여한 전통시장 상인은 "가게를 비울 수 없어 꼭 필요한 교육기회가 있어도 받지 못해



경영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 아쉬웠다"며,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가게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들을 상세히 상담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 도 전통시장 활성화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영훈기자

최정부기자

# 서태지 "데뷔30주년, 원로가수" ...BTS 합동무대 영상 공개

'서태지 25주년 기념공연 타임 트래블러' 풀버전 선보여

'문화 대통령'으로 통하는 가수 서태지가 내년 데뷔 30주년을 앞두고 소감을 전했다.

서태지는 24일 소셜 미디어에 "내년이면 벌써 데뷔 30년째다. 어느덧 교과서로 접한다는 그런 진짜 원로가수가 돼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지난 25주년 공연무대에서 '우리 30주년에 또 만날까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당연히 10집도 나오고 30주년 공연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늦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글에 음반 소식도 공연 소식도 하나없이 너무 아쉽겠지만 부디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서 "사실 나도 많이 허탈하고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서태지는 이런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보고자 지난 2017년 9월 잡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펼친 콘서트

'서태지 25주년 기념공연 타임 트래블러'를 풀버전으로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해당 영상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오후 8시 서태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다. 이 콘서트는 현재 글로벌 수퍼 그룹으로 자리매김한 '방탄소년단'(BTS)이 확실한 월드스타로 부상하기 직전에 출연한 무대다.

당시 서태지와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가 다 함께 꾸민 블록버스터 무대인 '교실이데아'와 '컴백홀'은 그해 계속 회자됐다. 서태지는 일찌감치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가능성을 보고 높게 평가했다.

서태지는 이 콘서트 영상에 대해 "벌써 4년전 공연이라 나와 사랑스런 팔로워들, 멋진 서밴(서태지밴드) 멤버들, 꼬마 엘리(서태지 곡 '크리스탈로인'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아역 배우), 그리고 최강 BTS 멤버들 모두의 뜻뜻한 모습이 관련 포인트"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은 볼수없는 그라운 스탠딩 공연"이라면서 "아쉬운 마음 뒤로하고 인사를 하려고 해요 다음엔 꼭 좋은소식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모두 힘드시기 꼭 이겨내고 우리 웃으며 만나요. 내년에는 소원하는 일들 다~ 이뤄지고 무엇보다 엔데믹이 마법처럼 다가오길! 모두들 희망차, 정신줄 팍! 잡고, 아프지 말고, 건강한 2022년이 되길 바래요"라고 덧붙였다.

서태지는 1992년 그룹 '서태지의 아이돌'로 데뷔했다. 힙합, 댄스, 록, 메탈, 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그의 음악은 한국 대중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듣는다. 또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장르와 팬덤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HYBE)는 오는 31일 오후 5시30분에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2



위버스 콘 [뉴 에라]에서 서태지의 음악을 되짚는 헌정 공연을 선보인다.

서태지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다. 김효진/기자



16 문화매일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더블트러블' 임슬옹! '넥스트 레벨' 댄스로 강렬한 등장!

임슬옹이 예측 불가한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4일 방송된 왓차 오리지널 음악 예능 '더블 트러블'에서 임슬옹을 비롯한 남녀 아이돌 10인은 대망의 첫 미션을 함께할 듀엣 파트너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리퀀 무대에서 임슬옹은 공민지와 에스파의 'Next Level' 커버 댄스를 선보이며 등장해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다.

임슬옹은 첫 무대에서 비록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효린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하며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또한 임슬옹은 효린과 수지&백현의 'DREAM' 무대를 준비하기로 결정하며 열의에 가득찬 모습을 보였다.

특히 걱정하는 효린을 위해 "부담 갖지마 잘 할 수 있어"라고 토닥이며 14년차 가수로서의 위엄과 든든한 '선배미'를 발산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그간 다양한 듀엣 무대를 통해 매력을 발산해 온 임슬옹은 '더블트러블'을 통해 실력있는 보컬이자 프로듀서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임슬옹은 꾸준히 음악 및 연기 활동을 진행 중이며, 지난 11월엔 2am으로서 주요 음원차트 상위권을 휩쓰는 등 톱 발라드 가수로서의 위엄을 보여줬다.

임슬옹은 앞으로도 방송, 화보, 공연 등 다채로운 활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효진/기자

마마무 휘인, 내달 16일 새앨범 발매한다.

그룹 '마마무' 멤버 겸 솔로 가수 휘인(Whee In)이 9개월 만에 두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한다.

26일 소속사 더 라이브에 따르면, 휘인은 내달 1월16일 두 번째 미니 앨범 '휘(WHEE)'를 공개한다.

휘인은 '이지(EASY)', '부담이 돼', '헤어지자' 등을 발표하며 솔로 가수로서 입지를 다졌다. 지난 4월 발매한 첫 번째 미니 앨범 '레드(Redd)'로 주목 받았다.

또 휘인은 MBC TV '웃소매 붉은 끝동',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드라마 '어느 날' 등 드라마 OST에도 참여했다.

이번 앨범은 휘인이 전 소속사 RBW와 계약이 만료된 뒤 소속사를 옮겨 처음 발매하는 앨범이다. 마마무 동료인 문별도 비슷한 시기인 내달 19일 새앨범 '시퀀스(6equence)'를 내 '선의의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최재은/기자



임영웅, 2021년 마지막 일요일밤 책임진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 임영웅이 올해 마지막 일요일 밤을 책임진다.

26일 오후 9시15분 KBS 2TV에서 '2021 KBS 송년특집 - 위어 히어로(We're HERO)' 임영웅이 방송된다. 임영웅의 첫 단독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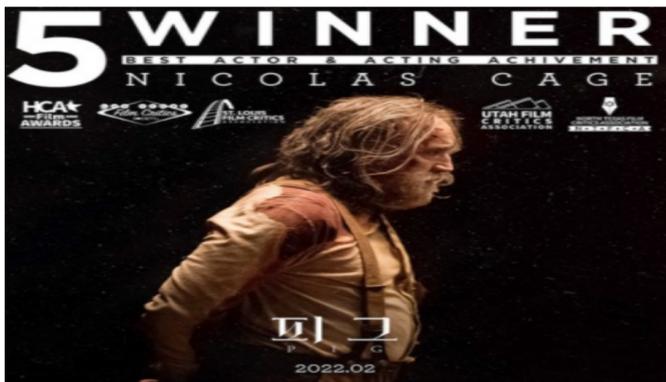
특히 이날 임영웅은 준비 중인 첫 정규앨범 중 신곡 1곡을 미리 공개한다.

현유주/기자

현장의 열기와 감동을 위해 방송 이후 VO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2016년 '미워요/소나기'로 데뷔한 임영웅은 작년 초 '미스터 트롯' 출연 이후 스타덤에 올랐다. 지상과 방송에서 단독 쇼를 마련해줄 정도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영화 '피그' 美어워즈 시즌 13관왕 돌파!



美 어워즈 시즌 13관왕에 빛나는 마스터피스 드라마 '피그'의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연기상 5관왕을 달성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다.

2022년 2월 개봉을 확정된 마스터피스 드라마 '피그'는 전미 비평가협회 최우수 데뷔 작품상 수상을 시작으로 시카고, 포틀랜드, 플로리다 비평가 협회에서 총 13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웰메이드 작품임을 확실히 입증했다.

또한 英 가디언지와 美 인디언어,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스릴리스트가 선정한 '2021 최고의 영화, 연기'에 거론되면서 이번 어워즈 시즌에서 명실상부한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특히 오스카 수상 감독 '기예르모 델 토로'에게 "물도 없게 천재 배우만이 전할 수 있는 감동"이라는 찬사를 받은 '피그'의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할리우드, 라스베가스, 세인트 루이스, 노스 텍사스,

유타 비평가협회에서 연기상을 석권하며 美 어워즈 시즌 통산 5관왕을 기록했다.

미국 시상식, 영화 협회, 남우주연상 부문에 17차례나 연속으로 노미네이트되며 완벽한 부활을 알린 그는 윌 스미스, 덴젤 워싱턴, 베네딕트 컴버배치, 앤드류 가필드와 연이어 트로피 경합을 펼치며 세계 영화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영화 비평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 97%를 달성한 '피그'는 "반드시 봐야 할 마스터피스" (INDEPENDENT), "니콜라스 케이지의 21세기 전성기" (EMPIRE), "진심이 닿은 특별한 걸작" (Globe and Mail), "새로운 감동의 울림을 선사하는 드라마" (ABC Radio), "처음부터 끝까지 예상을 깨부순다" (RogerEbert.com), "기대 그 이상! 아름답고 훌륭한 드라마" (New York Times), "창의적인 스토리와 탄탄한 연기력이 만나 탄생한 감각적 오디세이" (Rolling Stone) 등 만장일치에 가까운 호평을 받아 관객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수상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의 마스터피스 드라마 '피그'는 내년 2022년 2월에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현유주/기자

넷플릭스 '고요의 바다', 세계 순위 7위로 출발

고요의 바다.. 공유, 배두나 주연 '플릭스 패트롤' 집계

넷플릭스 새 한국 시리즈 '고요의 바다'(감독 최항용)가 공개 되자마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 집계 차트 순위권에 올랐다.

26일 '플릭스 패트롤' 집계 따르면, 지난 24일 공개된 '고요의 바다'는 이 사이트 25일 자 '톱 TV 쇼스 온 넷플릭스' 차트에서 7위를 차지했다.

'오징어 게임'이 6위다. 1위는 지난 22일 공개된 미국 시리즈 '에밀리 파리에 가다 시즌2'가 차지했다.

플릭스패트롤은 24시간 동안 시청률을 집계, 하루 단위로 순위를 공개한다. OTT 업체 그리고 부문별로 나눈다.

최만식/기자

'고요의 바다'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에선 1위를 차지했다. 해외 국가 중에선 태국 싱가포르와 태국이 3위로 가장 높았다.

"흔치않은 소재라 흥미롭고, 영상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조반이 지루한 편" 등 평이 엇갈리고 있다.

'고요의 바다'는 2075년을 배경으로 자원 고갈로 황폐화된 지구를 구하기 위해 달로 간 우주 대원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달에 있었으나 폐쇄된 연구기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이다. 배두나·공유와 함께 이준·이무생·김선영 등이 출연했으며, 배우 정우성이 제작에 참여했다.

이번 작품은 2014년 제13회 미장센단편영화제에서 호평받은 최항용 감독의 동명 단편영화를 시리즈화했다.

최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마더' '미쓰 홍당무' 각본을 쓴 박은교 작가가 시나리오에 참여했다.



권상우,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 첫 사극·첫 악역 도전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에서 권상우가 첫 악역 변신에 나선다.

'해적: 도깨비 깃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왕실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 모인 해적들의 스펙터클한 모험을 담은 영화다.

첫 사극에 도전한 권상우는 보물을 노리는 역적 부흥수를 맡아 연기 변신을 선보인다.

권상우가 연기하는 '부흥수'는 사라진 보물을 사이에 두고 '무치'(강하늘)와 '해랑'(한효주)이 이끄는 해적들과 대립하는 역적이다. 평생 품어온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권상우는 폭발적인 액션신과



해적들과의 숨막히는 대결 구도로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김정훈 감독은 "'부흥수'를 통해 여유롭고 관록있는 새로운 유형의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싶었다."

권상우 배우의 변신은 이 영화의

시너지를 높이고 재미를 주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적: 도깨비 깃발'은 2022년 새해 개봉 예정이다.

김효진/기자

방송인 이상민, MBN '알토란' 새 MC로 출격!

방송인 이상민이 '알토란'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

26일 방송되는 MBN '알토란'이 부분개편을 맞아 새 진행자로 이상민을 낙점한 것. 이상민은 과거 다양한 음식점을 운영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요리를 배운 적은 없지만 출중한 요리실력을 겸비하고 있다.

또, 미식가로도 알려진 그는 레스토랑과 주점 등 다수의 요식업을 운영해본 경험을 갖춘 '알토란'에 딱 맞는 MC이다.

이날 방송에서 이상민은 지금껏 방송에서 보여준 적 없는 '킹스맨 콘셉트'의 색다른 모습으로 등장, 출연진은 물론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새 MC 이상민과 함께하는 '알토란'은 '밥상 vs 밥상'의 대결 구도로 대결

레시피를 확장하고, 기존 4인에서 2인 세트 체제가 되면서 세트가 보여주는 '따라 하고 싶은 레시피'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MC부터 패널, 세트까지 일렬로 앉았던 기존 구도에서 대결 느낌을 강조한 세트의 변화도 있다.

한편, 개편 첫 방송에는 특별한 손님도 방문한다. 국보급 성량을 자랑하는 트로트계의 레전드 김연자가 출연하는 것. 평소 '알토란'의 애청자이었던 '요.알.못(요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 그녀는 레시피와 팁을 적어가고자 수첩과 펜을 들고 열혈 학생 모드로 녹화장을 찾는다.

'알토란'은 연말특점을 맞아 겨울철 식재료인 '황태'를 이용한 음식들을 선보인다. 이 보은 요리연구가는

황태장과 황태초추침을, 토니 오 세프는 황태불고기과 황태겉절이장정을 만들어 보일 예정이다.

이들의 요리 중 특별 게스트 김연자가 꼽은 최고의 밥상은 과연 무엇일까? 새로운 MC 이상민과 함께하는 '알토란'은 26일 일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최재은/기자

